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위탁병원(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 오전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4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로 애쓰신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하면서 회의장도 비좁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밖에서 서서 수감하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심사 할 때 서울시의회의 사정을 개선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감을 하시는 데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립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시립병원에서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시립병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병원장들께서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병원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의료원 김민기.

○위원장 박양숙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병원장이 본인과 병원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277회 정례회 서울의료원의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관영 의무부원장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오제성 행정부원장입니다.

김석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윤진 진료부장입니다. 외과 전문의입니다.

장성희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이호연 간호부장입니다.

유승원 총무부장입니다.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미션입니다.

서울의료원의 미션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네 가지 비전과 세 가지 핵심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쪽 시설 및 위치입니다.

본관동은 지하 4층,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래부와 중앙진료부, 병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격리병동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압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입원실 10병실과 치료실,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주요연혁입니다.

저희 서울의료원은 1977년 강남구 삼성동에 서울시립강남병원으로 개원하고 2017년 5월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이 됩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3실 21팀, 1지원단, 1연구소, 1위원회, 1분원이며 인력은 정원 1,277명에 현원 1,185명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총 예산은 1,565억으로 2016년 1,388억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결산사항은 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의료품질로 신뢰받는 병원,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시민과 함께

하는 병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쪽 공공의료 중심병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의 병문안 문화 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내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문객 관리시스템 및 면회객실을 구축했습니다. 2월 독립된 면회객실 6개소 10실을 준공하였고 6월에는 방문객 출입통제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며 8월에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며 책임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총 세 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나눔진료, 두 번째 어르신치과 이동진료 그리고 생명문화버스가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모든 사업 목표 대비 7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역할 수행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A형간염 예방접종, 치과진료 등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는 LG유플러스와 협력하여 의료취약계층 환자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여성폭력피해자, 위기청소년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과 만성질환자 관리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관기관 보건소와 연계해서 시민에게 유익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건강어르신 선발대회, 저염식단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를 관리 관찰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관리 수첩 앱을 통해서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만성질환을 위한 전문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국제 의료협력 사업입니다.

서울의료원은 해외 현지 병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현지 보건의료인력 교육을 통해 국제보건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키르키즈스탄에 의료지원 및 의료인 초청연설을 진행 중이고 올해에도 7월에 키르키즈스탄을 방문했고 10월부터는 키르키즈스탄 연수인원 8명을 초청하여 4주, 8주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중국 북경시 로하병원과 올해 9월에는 삼육재단 산하 북아시아태평양 지역 병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의료취약도시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의료품질로 신뢰받는 병원입니다.

먼저 의료성과 향상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수익증대와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재정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진환자 진료세션을 확대하고 의료진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의료진 추가 확보를 통해서 진료의 양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예산담당자를 지정하고 예산부서와 각 부서 담당자가 예산을 이중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올 9월까지 진료인원과 진료수익 모두 목표 대비 70%를 달성하였고 일 최고 외래환자수가 2,622명, 월 최고 의료수익은 110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쪽 의료품질 향상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의료수준 향상과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 효율성을 위해서 e - IRB 시스템 지원과 논문발표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회진진료, 전자동의서시스템, 환자인식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서 환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환자 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적정진료와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준진료지침 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 4월 표준진료지침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9월 현재 총 44개의 CP를 개발하였습니다.

19쪽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먼저 병원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조직 운영을 재정비하고 경영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진료·수술재료의 사용량 및 재고를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기획실 신설로 물류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인사채용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인재상 수립 등으로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조직 및 직무 적합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시정 운영과제 수행과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인력운영방침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3% 이내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중이며 현재 106명 정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올 9월 직원 86%의 투표를 통해서 근로자이사 2명을 선출하였고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부족한 인력을 위해서 인력증원을 했고 5월에 간호사 15명을 채용했습니다.

시 산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산하 시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인력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9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등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매주 1회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의 의료품질 향상과 관리자 및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4쪽 시민과 함께 하는 병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온·오프라인의 다각적인 홍보로 대외인지도를 강화시키고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의료원이 MOU를 맺고 맘스케어 교육사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초의료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자원 활용과 정기모임을 지원하는 맘스케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의료원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실시하였고 의료원 앞 야외광장에서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용히 40년을 되돌아보기 위한 40주년 기념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시민을 위한 열린공간입니다.

1층 로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기 의자와 소파를 교체 추가하였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건물외벽에 마음글판을 설치하였고 월 1회 정기공연 공감, 주 1회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하는 비타민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의료원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질적·양적인 큰 성장을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운영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2018년에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김민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영병원 업무보고입니다.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복근·김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진료부장입니다.

강영자 간호부장입니다.

김남희 간호1과장입니다.

박금옥 간호2과장입니다.

유희정 약제과장입니다.

김성년 원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어린이병원 병원 시설은 서초구 내곡동 4만 6,000㎡부지에 9개 병동 231병상이며 주요 장비로는 인공호흡기 17대 등 21종 341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은 1948년 종로구 보건병원으로 발족하였고 2007년 서초구 내곡동 현 위치에 증축되어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병원인증을 획득하였고 2015년 어린이병원발달센터를 착공하여 올해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조직은 2부 2과로 진료부, 간호부, 약제과, 원무과가 있으며 진료과목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 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인력은 9월 말 기준 286명 정원에 현원 258명, 그중 의사는 병원장 포함 22명입니다.

다음은 4쪽 진료현황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포함하여 9월 기준 총 외래환자 6만 9,037명, 입원환자는 5만 7,07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으로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세입예산은 125억 7,0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88억 9,600만 원을 징수하여 올해 초과달성이 무난하고, 6쪽 세출예산은 188억 600만 원으로 발달센터 정산이 완료되면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지금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고 그중 첫 번째, 어린이 건강안전망 병원 사업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8쪽 중증 장애어린이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복합중증장애 환자로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하고 있고 전인적이고 윤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자분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병동환경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영상촬영기,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를 보충하였고 장애어린이 환자 51명이 입원하였으며 간호조무사와 간병인 채용으로 보다 많은 돌봄과 따스함이 전달되는 전인적 간호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입니다.

적정 간호 인력에 의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입원환자의 안전 및 환자 만족도 향상,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16명의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지난 6월부터 3개 병동 90병상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아닌 정식 간호인력 18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기아동 건강안전망 제공입니다.

어린이병원에 내원하는 유기아동에 대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진료, 재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건강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기준 105명, 11월 기준 130명의 유기된 신생아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중 30여 명이 황달, 미숙아, 다발성 기형, 가정출산 등의 이유로 입원진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등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 타 병원 진료 140건이 이루어졌고 입원하였던 44명 유기아들은 치료 후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등 8개 기관으로 사회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건강검진 활성화입니다.

적극적 건강검진을 위해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어린이 발달장애 및 신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월 기준 3,126명에 대하여 영유아 검진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초등학교 4,11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건강검진 영역을 포함하여 서비스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자 안심 약제서비스 사업입니다.

알약이 아니라 모든 약을 분쇄하고 갈아서 가루약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린이병원 환자의 특성에 맞는 조제와 복약상담 등 맞춤형 안심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환자에게 약 투여 전까지 3단계로 조제 과정을 확인하는 검수시스템, 진동벨과 투약전광판을 이용한 편리한 투약 안내 등 환자가 보다 편리한 병원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아 194명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공의료 ‘ 행복나눔 함께 서울 ’ 입니다.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기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역보건소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어린이, 북한이탈 어린이,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였고 특수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비만교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동남권역인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보건소 및 2개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하고 사업지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총 603명에게 진료, 검사, 심리상담 등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두 번째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네 가지 사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 2기 병원인증 준비와 안전한 병원환경입니다.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과 의료 질 향상 활동으로 감염발생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인공호흡기 환자 폐렴 발생률 등 23개 임상질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지침집을 개정하였으며 대상병 감염관리를 통하여 병원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2주기 인증 조사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최대한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이 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달센터의 개원에 따른 신경발달센터 캔두(CAN DO) 운영으로 자폐 및 발달장애 치료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치료기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전문의 3명이 충원됨에 따라 영유아 협진 클리닉, 뇌전증 클리닉, 희귀난치병유전 클리닉, 문제행동치료 클리닉, 연하재활 클리닉 등 특화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 구강진료 공공성 강화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장애아동 및 일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지역 어린이들이 구강 치과진료 서비스를 받았고 21명의 장애아 부모님들도 보철, 치주질환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구강 치과진료 서비스인 ‘ 따뜻한 미소 건강한 미소 ’ 사업을 지역 내에 12개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365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병원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대학생을 위한 실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직원들의 증례토의 보수교육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53개 대학 보건의료 관련 대학생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65일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병원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고의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두 가지 사업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7쪽 발달장애어린이 통합 발달 치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에 대기 순번에 의한 분절적 재활치료를 탈피하여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고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소아정신 재활서비스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발달장애어린이들에게 연령별 증상별 맞춤형 재활치료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는 9월까지 현재 연인원 총 3만 4,306명의 어린이들이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9쪽 뇌 병변 등 신체 재활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9월까지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연인원 2만 6,600명의 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았고 스포츠형 재활프로그램, 낮 병동 운영, 연하재활치료 등 개편을 통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보다 좋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간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고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환자가 편하고 보다 쾌적한 진료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네 번째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과 병원 리모델링에 관한 세 가지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안전하며 장애어린이 친화적인 발달센터 건립입니다.

발달센터는 2013년 서울시,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 체결된 후 추진되었고 2015년 1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건물 준공하였습니다. 시비 117억 원과 삼성기부금 200억 원 등 총 3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입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시 도시기반본부로부터 건물 인수를 받았고 이후 한 달여 동안 내부 인테리어와 안전문 설치 후 10월 27일 개원식을 하여 현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건물 관리가 되도록 하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미진한 부분은 좀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발달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어린이들에게 최고의 다학제적 통합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여 국내 발달장애 치료를 선도하는 허브기관이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할 4대 정책과제로는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진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진단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기반 협진 서비스의 강화, 장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양육 부모교육,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체성 강화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캔두(CAN DO, Center for Autism and Neurodevelopmental Disorder)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설정하였고 향후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 병원 본관 재구성 리모델링입니다.

발달센터가 건립되어 기존 본관동에서 운영됐던 행동치료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발달센터로 이전됨에 따라서 본관동에 새로 생기는 2,000㎡에 대한 재배치、재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및 시공사 선정 후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공간 재배치 후 재활치료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 직원 휴게실, 직원 체력단련실 등 설치로 직원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민참여 나눔과 봉사가 있는 병원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부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어린이병원 지정 기탁금을 통하여 매년 8,000만 원 정도의 의료비 지원을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2억 원 상당의 재활치료 기기에 대한 물품지정기탁이 이루어져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간연계를 통하여 따뜻한 나눔과 사랑이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시민이 참여하는 병원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며 지역과 소통하고 병원 운영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연인원 5,20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하여 병원서비스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재능기부를 통한 월례 음악회, 문화행사, 청소

년 자원봉사학교를 통하여 시민과의 정서적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나누며 소통하는 병원으로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시민들을 대표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받는 어린이병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김재복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안녕하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복근 부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277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 은평병원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정책 조언을 경청하여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공공보건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은평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혜 진료부장입니다.

이인순 간호부장입니다.

조경숙 약제과장입니다.

이동문 원무과장입니다.

김옥희 간호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은평병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보고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병원은 ‘ 우리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공공보건 발전을 이룬다 ’ 는 미션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이면서 병실 48개에 병상 275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직은 2부 2과 그리고 7개의 진료과와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력 정원은 216명, 현원 2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현황은 2015년도에 15만 5,000여 명, 2016년도에 15만 2,000여 명, 2017년 9월 현재 10만여 명이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징수 현황은 예산현액 8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집행현황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68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출을 진행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집행률 70.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4개의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운영이라는 제목 아래 5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유지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인증 유지관리를 통해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하고 진료환경의 안정적 정착으로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업무지침 재·개정 완료는 9월 11일에 하였고 현재 1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2주기 정신병원 인증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독환자 대상의 ‘ 통합 재활 프로그램 ’ 운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지속적 증가로 치유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중독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결과를 12월에 게재할 예정에 있고 또한 매뉴얼을 책자로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재활관리 간호관리 시스템 추진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관리시스템 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최상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8,515회 진행하였고 매니저 활동 및 만족도는 96.9%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과정 운영입니다. 사회전반의 정신보건 필요성 증가로 수련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최고의 정신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량강화 및 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교육은 이론교육 120시간 그리고 실습교육 618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이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감염관리 안전망 구축 강화사업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발생을 감시하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손 위생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인증 대비 감염관리 예방활동 및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의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사업입니다. 2017년 5월 30일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입원 여건 강화를 통한 환자의 인권보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2인 진단의 입원제도 시행으로서 정신건강 의료기관 입원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 정신의료기관이 총 9개소이고 현재 저희 은평병원은 지정 진단 의료기관으로서 2인 의사 진단제도를 위한 출장진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참고로 연도별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입원환자 대비해서 은평병원 응급입원환자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서울시 발생 응급입원환자 중에 83.4%가 저희 은평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2016년 7월 기준 73.2%의 응급환자가 입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 발간 확대를 통한 병원특성 홍보강화사업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증진과 병원특성의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를 7월과 10월에 발간하였습니다. 또 4/4분기의 소식지 12월 중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청사시설 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옥외 치료공간 조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제거 공사를 지난 10월 중에 마쳤습니다.

네 번째, 청사 현대화 및 증축 추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한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서 병동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따라서 친화적 병원 환경을 조성하면서 정신병원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관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통해서 이루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자 인권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치료팀 중심의 인권존중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통해서, 또한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통해서 환자의 인권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투약 인력교육과 함께 복약 안내문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 질(QI) 개선활동 추진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인증 유지관리를 통해서 환자 안전 및 최상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팀별 QI활동은 18개 팀에서 진행하고 있고 환자안전관리 지표 수행 및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다섯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병원 사업으로 입원환자와 직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적、신체적 정신건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여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입원환자 대상 프

로그램, 직원 대상 그리고 지역사회 대상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하여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자세한 프로그램 및 실적은 3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복지 기관 네트워크 사업 구축입니다. 은평병원 이용 환자들의 건강안전망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서울시 정신보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거리노숙인 정신건강 사례회의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은평병원 기부(자원봉사자) 문화 확대시행 사업입니다. 진료비 또는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등에 은평병원 기부 요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다시 피우다’라는 명칭의 요양원 환자 대상 은평병원 낮 병동 연계 신규사업입니다. 정신요양원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역사회 복귀 정착에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목적 아래 은혜로운집 대상의 환자분들에게 사회기술훈련 추가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낮 병동으로 오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꿈나무마을의 연두꿈터 진료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영유아 전담 보호기관인 꿈나무마을 내에 연두꿈터 아동 대상으로 소아정신과 조기진단 실시를 통해서 아동들의 정상발달을 지원하고 또 발달지연이 있다면 발견하여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부터 8월에 걸쳐서 영유아 초기진단과 발달평가를 시행하였고 그리고 이후 종사자 교육과 함께 영유아 상호작용 방법 현장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린이발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네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발달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발달장애아동 및 정서장애아동의 임상적 진단 및 연령요구에 맞추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장애별 연령별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센터 프로그램은 종결 시까지 안정적 운영을 하고 또한 실별 대기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과 높은 어린이 낮 병원 운영사업입니다. 발달장애아동 치료 및 학교연계 등 공공의료 기능의 수행과 함께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절감 및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반 20명 대상으로 낮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의 일반 교육기관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환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칸타빌레라고 하는 일반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통합지원을 하는 프로그램과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발달센터 환아 위기상황 대처강화 신규사업입니다. 원내 화재나 또는 아동 실종상황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에 초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절 대응을 위해서 각종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강화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상황이나 환아 실종상황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직원 및 환자 보호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강화를 시행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 아동지킴이 연계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 저희 은평병원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공공 정신의료기관으로서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병원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은평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병원의 주요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숙 진료부장입니다.

박영숙 간호부장입니다.

정덕숙 약제부장입니다.

정태명 원무과장입니다.

임미숙 간호1과장입니다.

정남숙 간호2과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미션과 비전입니다.

미션은 감염병과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복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설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은평구 갈현로7길 49에 위치해 있고 대지는 6만 8,000㎡, 건물은 3만㎡ 지하2층, 지상 7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5개 병실에 43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1948년 10월에 시립순화병원 결핵환자 진료소로 발족을 했고 2002년도에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직은 3부 1과 12개 진료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5명에 27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진료현황입니다.

의료보장별 환자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외래환자는 15% 정도가 의료급여환자로 구성되어 있고 입원환자는 40% 정도가 의료급여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병원의 특성상 결핵과와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순으로 환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징수예상은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일부 예산항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연말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첫째로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위하여 혁신적 난치성 결핵치료를 통한 전국 거점병원 역할 수행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들 중에서 난치성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성공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이 다제내성 결핵 신약 2종과 기존약제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결핵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치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전국적인 치료효과 향상 덕분인지 난치성 결핵환자 숫자가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결핵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제내성 결핵 신약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도출하고 중증정신질환을 동반한 난치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서울시 결핵현황 분석 및 개선 활동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결핵 컨트롤타워 역할에 따라서 결핵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민관협동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분석과 현장중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결핵현황을 분석하고 찾아가는 결핵예방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서울시의 결핵환자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과 유행성 감염병 대비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위해서 감염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병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

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관련 감염을 관리하고 직원들에 대한 감염관리를 하고 유행성 감염병 위기 시에는 이 대응을 위한 현장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관련 감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히 잠복결핵감염검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백세시대를 책임지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첫째,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치매 및 구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은평의마을 입소인들 대상으로 치매 및 치매고위험 환자와 정상인들에 대한 검진을 분류하고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은 아직 부족하지만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치매, 결핵, 재활, 만성질환 등 저희 병원에 주로 많이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잘 돌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결핵환자를 위한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재활·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강안전망 병원으로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협진 및 진료협력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이고 신속 정확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병원들이 현재 총 26개 병원이 있는데 이 협력병원들의 업무협약을 계속 체결해 나가고 있고 이 협력병원들과 진료의뢰 및 전원 건수가 점차 늘어나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검진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단기보호시설 이용자와 은평의마을 입소자, 은혜로운집 입소자, 지역아동센터, 은평천사원, 서울역 및 영등포역 앞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301네트워크 사업 등 포괄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보건·의료·복지 통합 네트워크를 잘 구축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적 지원과 의료비 지원 또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환자지원 체계를 갖추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자와 지역주민, 직원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하기 위해서 첫째, 간호·간병서비스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 및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가족간병 및 개인간병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한 개 병동 35병상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외 공동간병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의 통증과 증상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지지를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가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감염병 안전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에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을 구축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검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철저한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결핵균 비말로부터 안전한 채담실을 신설함으로써 병원 직원과 내방객 보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진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 질 개선을 위하

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전입직원에 대한 새내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업무 조기적응 지원과 내외부 전문교육 이수로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새내기와 직무전문교육, 임상전문가 양성교육, 인증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환자별 맞춤 의약품 안전관리서비스입니다. 대상자별로 다양한 복약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대상자별로 복약상담과 복약안내문을 제공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안전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적정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 향상 활동 및 질 지표 관리를 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 질 지표를 산출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가 되겠습니다. 1주기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현재 차질없이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들고 병원 경영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북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박찬병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탁병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이복근·김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환철 진료부원장이며 비뇨기과 교수입니다.

정영권 사무국장입니다.

신효연 간호부장입니다.

정선회 약제부장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페이지 고객서비스 헌장입니다.

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드리는 다섯 가지 약속과 이를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저희의 다짐을 실었습니다.

1페이지 미션 및 비전입니다.

미션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비전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병원, 최상의 의료로 서울의 상징이 되는 병원, 시립병원의 경영모델이 되는 병원, 일에서 보람을 찾는 병원입니다.

2페이지 시설 및 위치입니다.

대지 2만 4,573㎡에 건물 연면적은 7만 8,279㎡이고 입원병상은 총 763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진료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연구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의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시·도립 병원 최초로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 8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11월에는 행정동을 증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42병상을 추가하여 현재 총 8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1부 1국 5실 24개의 진료과이고 인력은 총 1,578명으로 의사직 272명, 간호직 659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진료현황입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전체 진료 환자수는 82만 3,687명이며 이중 건강보험 환자수는 69만 8,117명이고 의료급여 환자수는 9만 1,082명으로 전체 환자수 대비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은 내과가 28만 9,117명, 외과가 4만 1,208명 등 24개의 진료과에서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ㆍ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규모는 2,619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손익현황은 의료이익은 168억 적자이며 당기순이익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8억이 개선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로 감가상각비 및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퇴직충당금 감소로 회계적인 비용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공익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저소득시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진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9만 1,082명, 여성 및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진료는 2,6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간병지원은 8,893명, 진료비 감면은 10억 원, 진료비 지원은 13억 8,0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보라매병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의료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저희 병원에서는 전체 예산의 1.4%인 35억 8,000만 원을 공공의료부문 예산으로 배정하였고 이중 23억 8,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301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보건ㆍ의료ㆍ복지를 연결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1네트워크를 통해 총 151건의 지원을 시행하였고 지역사회 연계기관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외부 후원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예방적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후지원이 아닌 예방적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디딤돌 75건, 초기의료비 지원을 331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서울시 건강안전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동작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서울시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작구 건강안전망 사업 대상자로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ㆍ도립병원 최초로 폐 이식 수술을 진행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진료비 전액은 병원의 공공의료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및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서울시 안전망병원에서 의뢰하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나눔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망병원 중 도티기념병원의 폐업과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의 폐원위기로 의료환자가 감소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안전망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동작구 등 인근 5개 구와 만성질환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935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당뇨 혈당검사를 시행하고 당뇨 및 항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당뇨주간행사와 당뇨학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병원 사

업입니다.

내원객의 건강습관 함양을 위하여 9만 9,238건의 설명동영상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금연 중재 및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병원 심포지엄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절주캠페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공공의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공의료 관련 이슈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보라매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공공의료사업 협력 및 벤치마킹을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협의체에 참여하였습니다. 11월 3일에는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서울시 및 시립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의료 낙후 국가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몽골의료인 초청연수를 30일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중환자실 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을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공공의료역량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관리강화 사업니다.

적정성평가 지표를 관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7년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으로 대장암 등 전 영역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적정성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사업입니다.

적정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월 말 기준 106개의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표준지침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시립병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표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최상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상질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임상질 지표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4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표관리 TFT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 환자안전 향상 활동 추진 사업입니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캠페인 및 라운딩을 5회 실시하였으며 환자안전점검의 날 실시 및 환자안전 교안 개발 등 다양한 환자안전 활동을 위하여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연구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연구, 임상지원 연구, 융복합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여 9월까지 190건의 SCI(E)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33건의 원내 연구 및 239건의 위탁학술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여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진료실적입니다.

총 진료인원은 82만 3,687명으로 계획 대비 74%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수익은 1,735억 2,900만원으로 계획 대비 74.4%를 달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보라매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전체 시립병원과 공유하여 서울시 공공의료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표준진료지침 아카데미 등 각 영역에서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립병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 및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공간개선 및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과진료실과 입원생활 설명실 서비스디자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한 서비스디자인 선행사례를 타 시립병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고객만족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ㆍ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CS 교육과 원내 혁신활동에 적합한 인재발굴을 위한 보라매 파트너스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프로세스 혁신 사업입니다.

시민이 병원을 이용하는 전체 과정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모형을 개선하였고 교직원 제안을 통한 자율적 혁신 과제를 46건 진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홍보 및 시민 건강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주요 언론을 통해 312회 전문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강좌와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위·수탁 운영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립병원의 전문성 및 우수성을 알리는 수탁 30주년 기념행사를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보건복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사를 빛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김병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공의료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보내주심을 언제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열심히 청취하고 반영하여 동부병원이 시민께 더 잘 봉사하는 좋은 병원이 되도록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윤섭 진료부장 외과전문의입니다. 오늘 진료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여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춘화 관리부장 사무관리사 1급입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었습니다. 저희 동부병원 전 직원은 시민께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와 다짐을 행정서비스 헌장에 싣고 열심히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동부병원의 미션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입니다. 세 가지 비전과 세 가지 핵심가치를 갖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2쪽 시설과 위치입니다.

동부병원은 서울특별시민의 보건 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종합병원으로서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 6층, 지하 4층의 한 동 건물입니다. 병상은 202병상으로 입원병실과 호스피스,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3쪽 주요연혁입니다.

동부병원은 1929년 일제강점기 경성부 부민병원으로 개원하여 1957년 현재의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이전하며 시립동부병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서울의료원에 위·수탁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탁 5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에 있었던 주요사항은 2월에 서울지방경찰청과 주취인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에는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개소하였습니다. 7월에는 호스피스병동의 완화도우미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구성은 2부 11팀 18진료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22명에 9월 말 현재 현원 31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17년 9월 현재 외래환자는 10만 3,000여 명, 입원환자는 4만 5,900여 명입니다. 전체 14만 9,200여 명입니다. 이중 의료보장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환자가 외래환자의 42.8%, 입원

환자의 73.9%로서 전체 52.4%가 의료급여환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노숙인들은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비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쪽과 7쪽 예산과 결산입니다.

2017년 예산규모는 313억 3,3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하여 5.6%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의료수익 234억과 의료외수익 63억 2,800으로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균형예산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결산 손익계산서는 의료수익 201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세 가지 전략방향으로 공공의료 중심병원, 의료의 질 향상, 합리적 경영 세 가지를 가지고 열 가지 전략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전략방향인 공공의료 중심병원 부분입니다. 동부병원의 알코올해독센터는 올해로 운영 2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코올해독센터는 동부병원의 대표적인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알코올 문제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가정, 노동, 의료비용, 기회비용, 주취, 폭력 등의 여러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사회 이슈입니다.

동부병원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자활지원과와 함께 3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알코올해독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연계율이 9.7%, 배치율이 1.2%로서 예전에 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배치율이었던 0.3%에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한 좋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2쪽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13쪽과 14쪽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부병원은 매년 꾸준히 이어온 지속사업으로서 이 두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질병치료, 질병예방 등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욱더 힘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방향인 의료 질 향상입니다.

동부병원은 EMR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단계로 향후 EMR(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EMR 도입준비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으로 ISP를 수립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상의무기록시스템 고도화 및 의무기록 스캔 작업이었는데 첫 번째,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은 4월에서 7월 3개월 동안 진행하여 완료되었고 동부병원에 필요한 EMR의 타당성과 재정투자 필요성 등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영상의무기록시스템 고도화작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4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 현재 50.7%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지금 예정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동부병원은 전자의무기록 EMR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호스피스 사업 내실화입니다.

동부병원은 올해 호스피스병동에 완화도우미 제도를 7월부터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동부병원은 일반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 특수병동에서 완화도우미 서비스 그래서 병원 전체가 명실공히 보호자 없는 병원의 지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완화도우미 시행으로 3분기 호스피스 병상 가동률은 실적이 97.9%로서 임종하는 환자분을 제외하면 거의 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완화의료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와 완화도우미 질 관리를 위한 심화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 통증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임종하는 환자들을 위한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한 프로토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임종하신 분들의 사별가족들을 위해서 사별가족 프로그램을 유가족 둥지 모임 또 정관장의 지원을 받는 정관장 차별가족 프로그램 등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9쪽 환자안전, 직원안전, 지속적 질 향상 활동입니다.

동부병원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9월에 1주년 자체 인증을 실시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서 환자안전 활동 및 직원안전 활동, 지속적 질 향상 활동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쪽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병원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성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개선공사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부병원의 장례식장을 저희는 그전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장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례식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현대화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동부병원 장례식장은 네 가지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추모과 치유로 위로받는 장례식장 두 번째, 허례허식을 벗어난 합리적 장례비용을 사업을 선도하는 병원 세 번째, 상주가 선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례로 비공개 가족형 분향실을 진행할 예정이고 네 번째, 소외계층을 보듬는 공공형 장례식장으로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 유가족도 존엄성 있는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내년 1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 합리적 경영 부분입니다.

먼저 안정적 인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안정적 인력 운영 도모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현재 필요한 정원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좋은 일터로서의 병원 현장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업무량과 업무환경 등을 제고하고 있고 두 번째, 수고에 대한 급여와 복지혜택 등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성과 유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예측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올해 3교대 근무 간호사 처우개선비로 일인당 7만 원을 지급하였고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저희 병원 이직률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직률 표에 보시면 '15년, '16년도에 25.3%, 18,8%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9월 말 현재 8.2%로 상당히 개선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환경과 정당한 보상문제, 안정성, 유연성의 제고도 있었지만 이어지는 조직문화 개선과 역량강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25쪽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근무만족도를 올리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고 내부, 외부 고객과 추진업무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넓히며 건전한 선순환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고객을 위해서는 저희가 3월에 직원상담실 선샤인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적 고충을 감소하고 지지함으로써 정서적 안녕의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만족감뿐 아니라 조직 안정감 및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상심리전문가(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담으로 상주하여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87명 연인원이 9월 말 현재 진행하였고 상담주제별 분류에서는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합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소진을 미리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직원들의 행복한 병원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에 생산성 향상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과 함께 진료 내실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밀착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 간담회 및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홍보를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영상광고 및 병원 소식지 제작 배포를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여러 보도매체에 병원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진 강화와 병실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장례식장 직영화 추진을 통해서 여러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부병원은 시민이 주인인 병원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더욱 안심하고 건강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동부병원이 되도

록 더욱 겸허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동부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김현정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북부병원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북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 진료부장입니다. 내과전문의입니다.

관리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북부병원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쪽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의 미션으로 비전은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입니다. 비전과 미션을 이루기 위한 안전, 신뢰, 배려를 3대 핵심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북부병원은 재활전문 그리고 노인성 질환 전문진료,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를 위해서 설립되었고 총 6개 진료과가 있습니다. 중랑구 양원역로에 위치해 있고 대지 7,770㎡, 건물 1만 8,000㎡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CT 등 462종 2,500여 점이며 병상 수는 200병상, 간호등급은 3등급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연혁으로 2006년 5월에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2017년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고 또한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보건의료복지연계센터인 301네트워크를 개소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지역사회 5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노인건강돌봄통합지원센터인 365네트워크를 개소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는 주간 재활병동 즉 재활 낮 병동을 오픈하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9월에 호스피스 완화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위·수탁 현황입니다.

북부병원은 서울시 위탁기관으로 서울의료원이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완화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WHO 인증 HPH 건강증진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북부병원은 2부 9팀 1실 6개의 진료과 2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08명, 현원 195명입니다.

5쪽 진료현황입니다.

2017년 9월 현재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합해서 건강보험 6만 3,125명 의료급여 1만 3,513명 총 7만 6,77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환자 수는 73% 달성하였고 의료수익은 101억 4,700만 원으로 71% 달성하였습니다.

7쪽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총수입 216억 5,700만 원, 지출 216억 5,7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3.5%인 7억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 2016년도 결산현황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의료수익 122억 5,650만 원, 의료비용 176억 1,710만 원, 의료외수익 74억 8,510만 원으로 2016년 당기순이익은 2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10쪽입니다.

2017년에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심,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 시민을 위한 열린 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저희 북부병원에서 시작된 301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저희 301네트워크와 연계가 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의료가 중심이 되어서 환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복지자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 7월 현재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212건의 의뢰가 있었고 주로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이 많았고 또 사회보장연결도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관들에서 301네트워크를 시행 중이므로 301네트워크를 표준화하고 또 실무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01 네트워크 교육연구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사업과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연계모델을 개발하는 등 선도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제4회 301네트워크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찾동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3쪽 365네트워크 시행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금을 유치해서 저희 북부병원을 포함하여 중랑구 내 복지관, 구청,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 5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노인건강돌봄통합지원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내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복지를 향상시켜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이 사업의 연간 후원금이 약 1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노인건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로는 2017년 9월 현재 대상자 의뢰가 212건, 의료비 지원이 231건, 간병비 지원이 26명, 또 가정방문 상담이 350건 있었습니다.

15쪽 마을이 되는 병원 사업입니다.

북부병원은 ‘ 마을이 되는 병원 ’ 이라는 슬로건 하에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심점이 되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학교, 관공서, 전통시장 등에서 재능기부를 받아 병원에서 환자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병원은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병원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늘 교류를 함으로써 지역과 병원이 한마을공동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는 건강밥상 이야기, 건강강좌, 성교육은 물론이고 예방접종의 달 행사 등을 시행하면서 지역 내 경찰서,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초등학교 등에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에서 병원이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 친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가 가능한 직원을 양성하고자 늘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돌아오는 11월에 수화의 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 참여를 하고 또 장애인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예술단체 로사이드(Rawside)와 협력해서 병원 내 갤러리에 상설로 장애인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8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간병인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분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 10병상을 운영해서 연인원 3,100명 목표에 9월 말 현재 2,400명의 실적으로 7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지역사회、학교 등과 연계해서 공연, 안마봉사 등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미용, 목욕, 문화공연, 호스피스 등 전문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간담회, 무료 예방접종, 나들이 행사 또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봉사자 규모는 신규 101명을 포함해서 200여 명이며 수행인원은 4,463명입니다.

20쪽 양질의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관리를 위해서 2016년 취득

한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QI 활동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환자안전캠페인으로 병원 내 안전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낙상 예방사업과 환자안전 지표관리, 환자 확인 수행률, 손 위생 등 환자안전지킴이 활동과 의료기관 인증 67개의 항목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서 전 항목에서 ‘ 상 ’ 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11월에는 QI경진대회, 활동 포상, 또 환자안전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21쪽 재활치료 특성화입니다.

북부병원은 재활치료가 매우 특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달의 재활 왕, 또 중랑숲 걷기 프로그램, 그룹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재활환자와 보호자의 자조모임을 운영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재활의학센터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병원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주간재활병동은 재활치료 환자분들의 입원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환자 본인은 진료비가 경감이 되고 당일 입원을 하고 치료 후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또한 교대근무 간호사가 필요치 않아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2쪽 감염병 관리기능 내실화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시 음압시설을 갖춘 전문 격리병동 6개 병상을 운영해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관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전문의와 간호사로 구성된 감염관리팀을 운영하여 격리병실 환자 대상으로 격리교육을 시키고 또 의료진의 격리진료체계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방접종의 달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직원과 간병인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3쪽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입니다.

암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호스피스 치료 장소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와 더불어 퇴원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돌봐드리기 위해서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소 병원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서울지역 3개 기관 중 하나로 저희 북부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문의와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팀으로 구성해서 가정형 호스피스로 의뢰되는 경우에 24시간 내에 전화를 드리고 48시간 내에 방문을 해서 환자를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광진구, 구리시, 남양주시 등을 지원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48명이 이용하였고 702회의 가정방문이 있었습니다. 향후 찾동사업과 연계를 강화해서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24쪽 완화의료도우미 서비스입니다.

2017년 9월 완화의료도우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말기암 환자분들에게 전문적인 간병을 제공하고 또 가족에게는 간병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서비스 도우미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는 5인실 병실을 4인실로 바꾸었고요, 법정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29명이 25병상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저희는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부서 간 또 직종 간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직원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직원 사진전, 탁구대회, 베스트 스마일직원 표창, 행복마일리지 제도, 행복한 북부병원 캠핑, ‘ 건강한 나! 건강한 병원~ ’ 그리고 건강한 마을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차에 접어든 노사관계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직무교육, 전문교육, 이

러닝, 중간관리자 교육, 리더십 교육, 학습모임, 워크숍 등 전문교육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간호사 대상 소진예방 프로그램과 직원 워크숍, 리더십 교육, 관리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27쪽 시민을 위한 열린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대표, 주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에게 저희가 병원의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안과 집행내역, 민원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시민위원들이 병원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매우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2017년 9월 현재 시민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28쪽 CSR 수행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시민에 대해서 책임수행을 하기 위해서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갤러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징검다리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병원 이용자나 지역주민이 손쉽게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애인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료급식소 방문봉사, 찾아가는 진료, 학교 관공서 또는 경로당 등에서 건강교육을 하고 우천 시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병원 강당을 운동시설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29쪽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병원이 개원한 지 11년이 됨에 따라서 병원시설이나 장비들이 매우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후화된 정문 입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후문 쪽에 양원역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또 순차적으로 병원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단 정비 등을 해서 병원환경을 꾸준히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환자 및 보호자 대상 병원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만족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0쪽 병원홍보 강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정한 진료를 하는 훌륭한 공공병원을 알리기 위해서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마케팅도 하고 있고 내원객을 위해서 맨투맨 마케팅을 하면서 대외 인지도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북부병원 또한 그 역할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부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조숙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병원장 박태환 안녕하십니까? 서남병원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창원·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서남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잘 받들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서남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남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혜영 진료부원장입니다.

노창석 기획실장입니다.

이인덕 간호부장입니다.

조규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남병원은 치유와 나눔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토대로 건강백년을 선도하는 시민의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50병상과 중환자실 12병상을 포함하여 총 333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전체 병상의 89%가 다인실입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입니다.

서남병원은 2006년 9월 서울시의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2011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동년 12월 개원 시부터 이화학당이 수탁법인으로 운영해 오다 2017년 8월 27일 제3기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서울의료원이 위탁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서남병원은 3부 2실 1단 2개 센터 17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017년 9월 말 기준 정원 400명에 현원 380명입니다.

진료인원은 2017년 9월 말 기준 16만 9,911명이며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은 11%입니다.

진료과목별 환자현황은 33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447억 9,100만 원입니다.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355억 300만 원이며 의료비용은 9.4% 증가한 442억 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2016년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수익은 279억 9,000여 만 원, 의료비용은 384억 8,800여 만 원으로 의료외수익을 제한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36.8% 감소한 11억 2,0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진료기능 및 기관역량 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사업, 지역사회 협력 및 홍보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진료기능 및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도 진료수입은 9월까지 62.6%, 진료인원은 69.9%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탁 운영기관 변경 후 조직 안정화와 진료과목별 특성화 강화를 통해 의료의 질과 환자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외래환자 인원수가 수탁기관 변경 전 수준 이상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소아재활클리닉 운영입니다.

서남병원의 재활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아동의 조기치료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9월까지 1,422건의 운동치료와 2,058건의 작업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진료역량 강화를 위하여 응급실에 음압병실 1실과 투석이 가능한 병동 내 음압격리병실 4실을 2017년 3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염환자 발생에 대비한 훈련과 감염관리 인력보강계획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공의 수련 및 연구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인턴수련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의료원과 모자협력 관계를 통해 추후로는 가정의학과와 내과로 수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내 임상연구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서울의료원 IR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2016년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구축한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상질 지표관리를 하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입니다.

서남병원은 50병상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로 2016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1만 774명의 환자가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24시간 배치되어 응급실 환자 및 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6월 27일 개시 이후에 총 63명의 주취환자 사례를 돌보았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부분입니다.

서남건강안전망 통합센터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연인원 56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9월 말 기준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더 많은 사례발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뇌혈관 튼튼 프로젝트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더욱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서남권 3개 구 보건소의 50세 이상 대사증후군 상담자를 대상으로 경동맥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동맥경화도를 측정하여 선제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95%의 목표인원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남병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이주여성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감면체계와 의료비 지원, 독감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진료인원은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다문화이주여성은 10월 이후에 독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검사비 지원 및 치료프로그램입니다.

강서구와 양천구 치매지원센터와 환자 연계를 통해 초기 치매환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매환자에게는 미술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목표인원은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학대피해노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는 노인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갖추고자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나 의뢰 가능한 기관이 한정되어 사례가 적었습니다. 추후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의뢰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서남병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기능상태의 저하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세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개인별 포괄적 건강평가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중증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에 관리돌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 후에 건강편지와 문자발송 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자 역할과 양천치매지원센터와 보건소 방문간호사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9월 말 기준 달성률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증만성질환자 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 기준 확대를 통해 4/4분기에는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완화의료병동 운영입니다.

서남병원의 완화의료병동은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7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음악치료와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총 3,421명의 환자가 이용하였습니다.

27페이지 찾아가는 무료진료봉사 활동입니다.

서남병원은 월 1회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찾아가는 자체 무료진료봉사활동과 함께 서울시립병원과 함께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입니다.

서남병원은 지역공공병원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맞춤형 건강강좌와 시설종사자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협력 및 홍보강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병원의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원보인 서남공감을 분기당 발행하고 있으며 새로이 마음글판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하고 있고 수탁운영기관의 변경을 알리는 SNS와 블로그들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서남사랑회 주관으로 바자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서남병원은 서남건강안전망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의료심의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

체 형태로 운영하는 노인건강증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및 지역주민간담회 운영입니다.

지역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료요구들을 파악하여 기관 운영방향 설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간담회를 통해 수탁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남병원은 수탁운영기관 변경을 계기로 더욱더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시립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남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박태환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본인과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금일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이복근 부위원장님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선회 진료부장입니다.

이은영 공공의료사업단장입니다.

김상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외 주요 보직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페이지 병원 비전 및 전략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평생을 함께하는 최고의 전문 치과병원이라는 비전과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이라는 핵심 슬로건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장애인 치과진료를 선도하는 대표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시설 및 위치 현황입니다.

본원은 성동구 마장로 20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5년도에 개원하였고 주요 장비로는 유니트체어 24대와 덴탈CT 등 121종의 진료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내부의 리모델링을 통한 진료실 환경개선을 위해 밀집된 1층 진료실을 2층과 3층으로 층간 분리시켜 하는 휠체어 환자의 동선을 쾌적하게 이동가능하게 배치함으로써 장애인환자중심에 입각한 서비스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에서 5페이지는 조직 및 인력, 진료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1부 1단 1과 6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2017년 9월 30일 기준 정규직 정원 46명 대비 현원 51명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계약직 14명 중 정원 TO가 있는 계약직 6명 가운데 올 하반기에 4명은 정부의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기준 외래진료 현황으로는 건강보험 7,631명, 의료급여 9,628명으로 총 1만 7,259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외래환자의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2%, 지적장애·뇌병변 장애 및 정신장애환자가 약 45%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 기초수급자 내원환자 분포는 노원구 및 강서구가 각각 14%, 10%를, 성동구가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등급별 중증장애로 분류되는 1급에서 3급 환자는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실적은 138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1만 1,400여 명을 방문진료하였으며 지역별 분포는 은평구가 13%, 노원구, 강동구, 종로구가 7%, 강북구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예·결산현황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치과병원 ′17년 세입예산은 ′16년 예산 58억 4,000만 원 대비 2.8%가 증가한 60억 4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외래수익이 3.3%

증가하고 보조금지원 수익으로는 ' 16년 대비 5.2%가 감소된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보조금 명시이월사업 환자안내 대기시스템 및 홈페이지 재구축 비용 등으로 2억 500만 원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 16년 대비 인건비 0.2%, 재료비 1.6%, 관리운영비 7.1%가 증가한 것으로 책정하였으며 9월 말 현재 52%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 16년도 결산현황입니다.

감면 전 총 외래수익은 38억 9,6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의료외수익은 22억 8,6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총 의료비용은 5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감가상각비 3억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6,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2017년 주요사업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치과치료 의료보장성 강화 사업입니다.

본원은 전 내원환자 모두에게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50%, 건강보험의 경우 30%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 비급여진료비 혜택 등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환자에게 전체 감면액의 44%인 3억 8,000을 지원하였으며 장애등급별로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1~3급 환자에게 77% 감면혜택을 지원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 환자에게 약 72%의 감면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기준 현재 비급여 수가감면실적은 계획 대비 80%인 약 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동진료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이는 총 외래수익의 약 40%에 해당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신마취 원스톱 시스템 사업입니다.

본원은 작년 9월부터 전신마취 전 사전검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였고 2017년도 전신마취 치과치료 건수는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92%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은 65% 집행하였습니다.

본원의 전신마취의 장애유형별 환자현황은 지적장애, 자폐증, 뇌병변 장애, 정신장애 환자가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희 병원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스마일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전신마취비 지원을 받아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은 2009년부터 서울시 산하 및 소재 특수학교,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등 138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치과버스 2대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장애인치과이동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특별히 이동진료의 한계인 일회성 방문과 단순처치에서 나아가 중점치료기관을 선정한 후 기관별 전문주치의를 배정하고 최대 6회까지 동일기관을 방문하여 환자 맞춤형 진료는 물론 사후 구강관리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약 1만 1,400명을 진료하였으며 예산은 계획 대비 69%인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치과치료비 사업입니다.

본원은 저소득 장애인을 선별하여 무료틀니 및 보철 치료비 지원사업을 1인 최대 200만 원,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1인 최대 2개를 무상으로 진료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은 9월 기준 치과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약 50%의 선정률을 거쳐 99명이 선정되었고 치료가 종료되는 하반기에 예산을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내부 직원의 기부금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20세 이하 저소득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치과치료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 하얀별이Dream ' 이라는 신규사업을 신설하여 9월 말 현재 추천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서울시 및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연계하여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및 본원 전문의가 진행하는 체계적인 구강보건 교육강좌를 통해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지식전달과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강좌를 실시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

며 올해의 시범사업으로는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구강관리 방법을 2회 교육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사업 실적은 9월 기준 89.5%를 달성하였고 예산현황은 계획 대비 69%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본원에서 제작한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용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국、영문 버전으로 현재 본원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다운로드 및 배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본원에서는 구강질환 예방의식함양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하얀별이 심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거리캠페인 및 원내캠페인을 통해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100% 실적을 달성하였고 301네트워크 사업은 성동구보건소와 연계하는 성동형 의료복지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9월 말 현재 계획 대비 180%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은 계획 대비 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서비스입니다.

치과의료의 특성상 구강 내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와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 또한 유니트체어의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서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커서 전 직원에게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염관리 활동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전염병이나 감염노출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손 씻기 원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손 위생 수행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본원은 감염예방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염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환자 및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직원 직무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사업입니다.

장애인치과 진료를 위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장애인 의료 질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집중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는 진료의들에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플란트 6개월 연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청각장애인 환자 응대를 위한 수화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핵심가치 교육사업과 직무향상 교육을 구분하여 병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속적인 장애인 진료로 인한 직원들의 체력 및 사기 저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원내 힐링, 오감힐링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포상을 실시하여 내부 직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장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9월 현재 계획 대비 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기관평가 인증 유지입니다.

공공병원의 신뢰감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원은 작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한 후 인증결과에 따른 보완을 위해 TF팀 구성 및 연간 계획 활동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를 꾸준히 보완하여 2020년 제2차 의료기관 평가인증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환자 중심 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 접근성 강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약 40만 명인데 본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환자 수는 약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민 접근성 강화사업으로 올해는 병원 내 문화공간 조성 및 옥외광고물 설치, 병원 내 다양한 디스플레이 설치를 통해 시립병원 이미지를 새단장하였습니다. 특히 연초에 계획한 범국민적 홍보사업으로 수탁기관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관리하는 기자들을 활용하여 주요 4대 매체에 본원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 완료하였고 이외에도 외부 옥외광고물 교체, 바닥 안내 시트지를 이용한 원내 길 쉽게 찾기 서비스, 어버이날 내원 환자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 및 그림 전시회 등 시민 체감서비스 사업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에 온라인 소식지 외에도 두빛나래라는 병원보를 창간하여 병원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원내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 및 21쪽 발렛파킹 서비스 사업은 지속사업이므로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환자 대기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본원은 직원과 환자에게 개선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 진료의가 자기 환자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치과병원 특성에 맞는 환자안내대기시스템 사업을 지난 7월에 개발 완료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77%만 집행됐는데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절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 끝으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입니다.

본원 홈페이지는 2005년 개원 당시 제작된 웹페이지로 노후화로 인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함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홈페이지 재구축 TFT 구성을 통해 올해 10월 말 개발을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11월 중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으로는 개발비 4,400여 만 원이며 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시기에 따라 11월에 일괄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장기적인 비전 플랜을 갖고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장애우들이 행복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양숙 금기연 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오늘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듣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서북병원 최근 5년간 서울시 보조금 내역 및 국비 지원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 5년간 결핵환자 입원 건수 및 입원환자 완치율 연계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병원 최근 5년간 저소득층, 노숙인 결핵환자 및 완치 후 관련시설의 연계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북병원 장례식장 공유재산임대 재판 관련 재판 일시, 재판 요지, 재판 결과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개 오늘 피감기관 5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서울시 지도감독 관련 5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과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개 병원 크리스마스 씰 구매 내역을 5년간 것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인권침해 내용을, 2012년 이후부터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병원별로 백서나 연보를 작성한 걸로 돼 있는데 지난 10년간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다음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전체 대상입니다. 오늘 피감 병원 전체 2016년도 ’17년도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상세내역 그리고 순위별 지급내역 전체 다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 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 시행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겠죠. 월 단위 근무표 그리고 급여에서 인센티브 지급되는 것 그리고 근무일수, 휴일일수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좀 불완전한데요, 최근 3년간 병원 전체 다입니다. 병원 신규채용,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에 급여, 교육기간 중에 교육일수, 교육기간 중에 급여지급 내역 그다음에 발령 후 첫 초봉, 급여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반드시 표기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따로입니다. 부설연구소 최근

3년간 운영비 상세내역, 예산지출 집행률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병원 뉴딜일자리 26명에 대한 업무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숙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병원별로 내신 병원도 있고 안 내신 병원도 있어서, 병원별 사회복지실이 있죠? 사업내용, 예산, 인력규모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01네트워크 의뢰환자경로, 사례종결경로, 사례관리 이게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이 있어서 모든 병원이 함께 내주시고요. 301네트워크 의뢰환자의 동일인이 재의뢰하는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가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현황,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유형을 표시해 주세요, 지체면 지체, 농아면 농아, 시각이면 시각, 발달이면 발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진료현황 할 때 실인원 기준으로 해 주세요, 실인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인원 기준으로?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혜련 위원님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주세요. 뭐냐 하면 의료사회복지사 현황 그리고 의료사회사업 현황, 보통 우리는 공공의료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현황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각 병원마다 손실처리 전체 통계는 나와 있는데 손실처리 현황하고 원인 이것을 같이 주세요. 원인이 꼭 필요합니다, 손실처리된 현황하고 원인.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수탁하고 있는 강남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에 관련된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사랑회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다사랑회가 후원금을 받는다면 후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권미경 위원님이 했던 것 저도 최근 2016년, 2017년도 직원채용 현황인데 권미경 위원이 하신 것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병원별 오늘 수감받는 병원 전체 임직원 판공비 내역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한테 요구합니다. 서남병원 위탁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평가점수, 원한다면 엠바고로 할게요. 본 위원만 볼게요, 점수 관련되어서는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장애인채용 현황 그리고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내역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부병원하고 서울장애인치과병원 EMR 현황, 추진현황도 좋습니다. 아까 동부병원 원장님 보고내용 중에 있었는데 동부병원하고 장애인치과병원 EMR 관련된 현황 꼭 주세요.

그리고 의사분들 강의현황 주세요, 2016년도 2017년도 강의현황.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네 개 병원을 수탁하고 있는데 서남병원은 최근에 했으니까, 그래도 뭐가 있다면 주시는데 어떤 거냐 하면 서울의료원이 수탁하고 있는 동부, 북부, 서남, 용인정신병원 관리감독 현황 최근 3년 그리고 평가점수 현황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각 병원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오후 질의를 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자료를 요구한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다 배석하고 있는 병원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한 인력 외에는 밖에 많이들 와 계시는데 혹시 직접 관계되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공간이 비좁아서, 원래 이틀에 나누어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하루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공간이 비좁아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판단하셔서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9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지금 많이 안 왔죠?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자료가 전혀 하나도 안 왔네요. 다시 한 번 독촉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숙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셔서 아까 도시락 먹으면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같던데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스럽겠지만 좀 더 서둘러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질의를 자료와 관계없으신 위원님들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어쨌든 중요한 게 재정운영이기 때문에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안 나오셨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여기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병원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금년도 9월 말 현재 현금 365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단기금융상품 180억, 재료비 의료비용 비율이 한 20%, 인건비 의료비용이 약 61%, 부채가 527억, 수익 대비 비용을 빼니까 적자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보라매병원 금년 9월 말 현재 현금 보유액이 127억 그다음에 재료비 의료비용이 27.5%, 서울의료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인건비 의료비용 50.5% 이것은 서울의료원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수익 대비 비용이 적자 132억, 맞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런데 보라매병원 부채가 1,439억이에요. 수치상으로 굉장히 높은 건데 설명해 주시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부채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퇴직금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한 835억 정도가 퇴직금 충당금이고요, 그 외는 재료비 같은 것을 납품을 받았을 때 저희가 3개월 정도에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외상이 되겠습니다, 3개월 정도 되는 부채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제가 보니까 부채 1,400억인데 그렇습니다. 직원들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약 820억 돼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835억입니다.

○김선갑 위원 좋아요, 835억. 그런데 실제적인 부채가 보니까 4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인 부채는. 그런데 이 400억에 대한 부채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165억 원은 가수금이라고 해서 수익은 발생을 했으나 지금 현재 입원인지 외래비용인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서 된 것이 있고요. 또 미지급비용이 1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결산했을 때의 부채가 1,220억이었는데 올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산을 하게 되면 가수금 같은 경우가 다시 수익으로 잡히면서 부채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갑 위원 가수금의 개념을 얘기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실제적인 부채 400억으로 추산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입채무 130억, 미지급금 10억, 예수금 11억, 미지급비용 90억 이게 주요 구성인 것 같아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입채무 130억, 재료비가 130억이라는데 채무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저희가 보통 월 매출이 200억 정도 되게 되고요 그거의 30%가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월 재료비가 발생을 하고요, 보통 납품 후 3개월 후에 지급이 되니까 한 180억에서 200억 사이 항상 그 재료비에 대한 부채가 있는데 그것은 또 심평원에 우리가 청구를 하게 돼서 받게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채라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퇴직금 충당금이 실질적인 부채가 될 것 같고요.

○김선갑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재료비 부채가 130억이라는 건 재료비보다는 수익이 더 높지 않아요? 또 미지급비용이 90억이잖아요. 그 미지급비용 90억은 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보라매병원은 ABC원가시스템도 활용하고 있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데 퇴직급여충당 부채를 갖다 제외하고 실제적인 부채가 400억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높고 현금보유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원보다는 낮지만 이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 금년 연말에 한 150억 정도 되겠어요, 금년 연말에. 9월 말 현재 127억이죠, 현금보유액이?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서울시 보조금 얼마 받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운영보조금 110억에 자본보조 34억 해서 144억 받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144억 받죠? 서울의료원은 얼마나 받아요? 한 170억 받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저희는 운영보조금 88억 받고 나머지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188억 받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내가 서울의료원, 보라매원장님 두 분한테 여쭙겠습니다.

재료비 의료비용이 말입니다, 재료비 의료비용이 서울의료원보다 보라매병원이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2015년부터 2015년, ’16년 금년까지 비교했을 때 재료비 의료비용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재료비 비율을 의료수익 대비로 보는 거가 있고요 전체 의료비용 대비로 보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의료수익 대비로는 29%로 크게 증가는 안 하고 있는데 의료비용 대비로는 증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인데요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용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수치가 감소하니까 크게 감소해서 재료비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돼 있고요.

의료수익 대비로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 보았는데 29% 정도면 지금 저희 병원 규모에서는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의료 재료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중증도 증가에 의한 건데 주로 고가 항암제 또는 고가 스탠트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감가상각을 손실로 반영시키고 있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자체 자금은 손실로 반영이 되고요 보조금으로 받은 것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걸 다 반영을 해서 했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효과가, 그러니까 2017년에 떨어지기 때문에…….

○김선갑 위원 보조금에 한해서는 감가상각을 갖다가 손실로 반영 안 한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좋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그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선갑 위원 좋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입니다.

○김선갑 위원 작년 말에 흑자를 얼마 봤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70억 정도 봤습니다.

○김선갑 위원 보조금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상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건 회계기준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손익계산서 여기 나누어드린 우리 업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거기는 7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71억.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보유액 300억, 단기금융상품 예치 90억.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 상태에서 보조금 167억이 지원됐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선갑 위원 재정운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말씀주시는 의견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의료수익 대비 한 85억이 더 늘었습니다. 순수하게 환자가 늘어서 생긴 수익이 한 100억 정도 됐는데 목표보다도 85억이 넘어서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받기 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이득이 났던, 그다음에 아까 보라매병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회계상으로 더 큰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여기 오늘 우리 의료원 담당하는 과장님 나오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와 계세요? 정책과장님이세요? 답변대로 좀 나오시죠.

그전에 서울의료원장님한테 먼저 물을게요. 현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용도가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액수만큼이 예금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액수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예상보다 환자를 더 많이 보고 진료예약 등으로 생긴 85억 플러스 5 해서 90억 정도를 예금으로 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좋은 진료실적에 의해서 나온 액수만큼만 더 들어간 겁니다.

○김선갑 위원 서울의료원은 말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도 현금보유액이 373억이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2015년도에는 170억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보라매병원장님.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보라매병원장입니다.

○김선갑 위원 보라매병원도 현금보유액이 지금 금년 말로 한 150억 추정되는 것 같은데 현금에 대한 용도가 특별히 있어요, 혹시?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지금 보통 저희가 병원의 월 수익에 한 3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갑자기 파업이랄지 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사태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의료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이나 물건비 지급에…….

○김선갑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금보유액하고 단기금융상품하고 차이가 있어요. 현금보유는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일반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일반예금,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한 건? 이건 3개월, 6개월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3개월, 6개월 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현금보유액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다르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선갑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의료원 금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4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분기별 추세로 봤을 때는 현금보유액이 4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단기금융상품 예치금액이 180억, 약 6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 분기별 추세로 봤을 때 금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150억 내외가 될 것 같아요, 단기금융상품 예치가 201억. 내년도 각각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시보조금 얼마씩 편성했죠? 얼마씩 편성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뒤에 누구 나와 계세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서울의료원은 운영보

조금으로 114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보라매병원은 운영보조금으로 10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 외에 또 있잖아요. 의료원 전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합계 말씀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전체적으로 서울의료원은 자본보조금 포함해서 18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김선갑 위원 187억, 보라매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라매병원은 14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 위원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현금이 400억 하고 단기금융상품 180억 하면 한 580억, 600억 정도 됩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이 금년 말 추산했을 때 한 150억에 201억, 350억 정도 돼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내년도 보조금 지원 산출이 합리적으로 추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이 부분…….

○김선갑 위원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예산심의 때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끝으로 의료원장님 두 분한테 질문드릴게요.

단기금융상품 예치가 연이율 얼마입니까? 먼저 서울의료원장님 말씀하시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보라매병원장님은?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2~3% 될 것으로…….

○김선갑 위원 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2~3% 될 것으로…….

○김선갑 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는구먼요. 모르시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료원, 제가 보충시간 쓸게요.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창원 네.

○김선갑 위원 서울의료원 간병인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수급이라고 그럴까, 간병인 수급 이걸 에이엠영보에서 계약체결해서 지원받고 있죠? 에이엠영보.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우리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하고 북부병원을 수탁관리하고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부, 북부, 전체 서울의료원 합해서 같이 간병인을 갖다가 에이엠영보에서 수급을 받아요. 그런데 입찰과정을 거쳤는데 최저입찰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데 에이엠영보가 간병인하고 관련된 회사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말씀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저희가 용역 계약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고요 그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 원장님, 그 답변은 약간 무책임한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러니까 적격심사는 받는데요.

○김선갑 위원 간병인의 역할이 병원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간병인들이 간병을 하는 데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건 적격심사를 따로 받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런데 이 회사를 봤을 때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는 간병인 인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예요. 이 회사 전문은 뭐냐, 건축물 관리야. 경비, 주차, 청소 여기에 전문업체예요. 간병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는 최저가 입찰을 한 다음에 적격심사를 받고 서울시에도 계약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적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

씀주시는 걸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지금 현재 간병인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 있는 그런 간병인은 아니고요.

○김선갑 위원 아니,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에이엠영보에다 지금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것도 최저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임금이 최저임금은 준수되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최저임금은 다 준수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선갑 위원 그러면 지금 간병인들의 처우가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용역직원에 혜택되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요, 최저임금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때 수를 오히려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김선갑 위원 좋아요. 서울시에서 50플러스정책 추진하는 것은 아시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선갑 위원 50플러스정책의 취지도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50플러스정책이 국가경쟁력하고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중요한 정책이라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간병인들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간병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병인을 조절하는 그 업체는 건축물관리업체가 주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되는 간병인들의 자질이 과연 환자들을 제대로 간병할 수 있는지는 여부가 지표나 자료로 봐서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플러스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 또는 50플러스캠퍼스가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은 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시행은 캠퍼스하고 각 자치구의 50플러스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플러스캠퍼스에는 50플러스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계형일자리, 사회공헌형일자리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50플러스정책에 대한 콘셉트예요.

그래서 50플러스재단, 캠퍼스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서 교육절차를 밟은 간병인을 50플러스세대들에게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게 괜찮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닙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시 50플러스재단, 캠퍼스하고 상의를 거쳐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보라매병원은 간병인을 어떻게 수급하시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저희는 사람마중이라는 사회적기업이 낙찰을 받아서 25명…….

○김선갑 위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외 다른 시립병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병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간병인이 나름대로 병원마다 절차에 의해서 잘 수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의료원은 조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로 봐서는. 다른 병원도 간병인에 대한 자질이 객관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환자를 간병한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셔도 되겠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좀 전에 제가 서울의료원에 대안으로 제시한 50플러스재단, 캠퍼스하고 협의해서 50플러스세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립병원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똑같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이것 누가 자료 요청했는지 모르겠네.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제출 안 해도 되겠어요. 이중으로 자료제출 할 것 없습니다.

시립병원 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보라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은평, 어린이, 서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용역계약 맺은 용역계약일자, 계약내용, 상대회사 입찰방식 그리고 중요

한 것은 낙찰자와 낙찰에서 탈락한 업체들 있어요. 업체들이 제시한 액수 그것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창원 김선갑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주요업무 보고서 자료에서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의 의사가 14명, 기능직이 53명 총 10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총 94명의 결원으로 전체는 5명이 충원된 것으로 보이나 의사직의 경우 결원이 6월에 14명에서 오늘 20명으로 6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의료원 진료과 중 어느 분야의 의사가 결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의사의 숫자입니다. 서울의료원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의사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1년 정도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뽑고 있어서 현재 TO가 비워져 있는 거지 의사분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면 여기 자료에 숫자에 빠진다 이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이복근 위원 분명히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보고자료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어느 진료과든지 의사가 결원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과는 없다 이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 숫자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에서 지정되어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까지 거쳐서 서울의료원 내에 2019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시작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초기에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을 때의 형태와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변경이 한 차례 있었고요, 한 차례 변경이 되어서 진행되던 와중에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환자안전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서 조금 비용적인 문제나 설계적인 문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하고 설계 들어갈 때 우리 의료원의 의견이 첨부 안 되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전부 다 첨부되고 그것에 맞게 투자심사에서 수정을 본 후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랬는데도 변경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법의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있던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의료원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 첨부가 되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어쨌든 의료원이 전문적인 의견 등이 첨부되어서 응급센터 기능이 나중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 및 전문격리병동 연결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내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11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

면서 아무 때나 병원을 방문하는 병문안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시에서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병문안 개선사업으로 11억 정도가 저희들이 책정됐는데 전체 도입비용은 8억 3,9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평균 하루에 90명 정도 시범사업 때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불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환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른 병원에 제대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걱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느끼면서 보호자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전문격리병동 연결통로가 준공되어서 격리병동 환자들까지 거기를 이용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과거에 있던 메르스를 치료했던 치료병동이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다시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원하고 있는 사이에 이동경로가 마땅치가 않아서 중간에 구름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검사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물자나 인원이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격리병동을 이용하거나 격리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지금도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정도로 심한 환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환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복근 위원 내ㆍ외부 감사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내ㆍ외부 감사기관 지적사항을 보면 의료기기 구매업무에서 처리와 검수 등으로 지적됐던 내용인데 이중에 금년 4월 내부감사에서 구매업무 부적정으로 신분상 1명, 행정상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며 신분 및 행정상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네, 감사자료 13쪽.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요? 이따가 이것은 보충질문 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 4월에 기간제근로자 분쟁조사에서 3건이 지적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도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복근 위원 금년 4월에 기간제근로자 분쟁조사에서 3건이 지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조치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감사받았던 내용인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감사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기간제근로자…….

○이복근 위원 기간제근로자 분쟁.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 문제는 소송까지 간 문제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복근 위원 그러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게 뭐냐 하면 직원이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저희 행정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쓴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오기한 것이 유효하니 자기를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소송이 이어졌으며 지금 지노위나 중노위까지 끝났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행정적인 실수지 어떤 고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이복근 위원 감사자료 202쪽에 보면요 최근 3년간 근접오류 사고내역을 보면 처방과 검사의 오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근접오류가 치료과정이나 업무수행 중 오류가 발생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사고발생 전에 발견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사고발생 전에 발견하여 위해가 없다 해도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사실 걱정이 많고 불안할 걸로 보는데 전체 근접오류 현황에서 내용을 보면 지난 3년간 처방오류가 210건으로 25.3%이고 검사오류가 119건으로 14.9%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며 어떤 경우에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 보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근접오류는 저희가 근접오류 한 300건 당 중대부작용이 한 건 정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접오류를 많이 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예방조치를 열심히 하면 중대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를 하면 약간 평가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자가 밥을 먹기를 원했는데 주문이 죽으로 들어갔다든가, 그런데 실제 환자한테 죽을 준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한번 실수했다는 걸 인지를 한 순간 니어미스(near miss)를 적게 돼 있습니다. 저 같으면 예를 들면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제산제를 하루 2회를 처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3번으로 클릭을 했는데 실제 처방전이 3번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진짜 미스(miss)가 되는 거고요, 그전에 제가 알았다 그러면 한번 적는 거죠. 적어서 니어미스다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니어미스를 많이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시스템을 만드는 건 그게 안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중대부작용이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처방이 나가기 전에 내용을 알고 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발견한 것은 참 좋은데 그만큼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위원님 지적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복근 위원 그런데 특히 금년도 검사 근접오류가 8월에 17건, 9월에 18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8, 9월에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이건 실제 어떤 행위로 위험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병원 차원에서 어떤 데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보고를 많이 하라고 격려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환자 팔찌가 좀 흐려졌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그 흐려진 것 자체를 보고를 한 겁니다, 직원들이.

○이복근 위원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된 환자안전법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나서 그런 내용이 더 밝혀지니까 그런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 위원 하여튼 오류가 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해서 시민의 안전이, 또 근접오류가 보고되면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내용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지 실제는 일반 서울시민이 근접오류에 대해서 건수나 이런 게 나온다면 상당히 우리 병원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은평병원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건수가 많더라고요. 2015년에 158건, 2016년에 262건, 금년 9월 말 현재 574건이 발생했는데 은평병원 원장님,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전에 발견해서 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 9월까지 574건인데도 내용이 낙상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갑자기. 낙상이 뭡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낙상은 말 그대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복근 위원 그런데 그게 오류로 나오는 것은…….

○은평병원장 남민 전체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낙상 사고의 제1위험 요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우선 아무래도 저희 약물을 쓰는 과정에서 입원치료 과정에서 약물이 증량되는 과정에서 미끄럽거나 내지는 낙상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부분들을 방지하고 미연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위험한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방지

조끼를 따로 입힌다든가 아니면 병실을 따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내가 그걸 애매하게 들었습니다, 낙상에 대해서.

○은평병원장 남민 낙상환자가, 그러니까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낙상사고가 있는 환자들의 제1요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병원에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낙상 미리 그런 위험한 환자분들을 특별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앞으로 노력해서 그런 위험요인들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세요. 여하튼 사전에 우리가 예방해서 나쁠 일은 없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추가질문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창원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회의를 주재해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복근 그러면 이병해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현재 4개 동부병원, 북부, 서남, 용인정신병원 해서 수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립병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병원이 지난 8월 27일에 신규위탁을 해서 8명을 파견했는데 서울의료원은 공백상태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가적으로 그것을 보충하려고 지금 진료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해 위원 8월이면 9, 10월이 지나 한 2개월이 지났는데 공백상태로 그냥 가도 됩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의사들 수급 문제가 1년 내내 시장이 열려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연말, 연초에 몰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병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사전에 예견돼 있을 수도 있고 신규위탁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파견, 신규위탁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부병원은 12월에 계약을 예견하고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남병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있던 위·수탁기관들이 벌써 10년, 15년 이상 오래된 위탁기관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남병원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동부병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좌우지간 계약만 이렇게 행정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영이라든지 이런 운영체계를 잘 갖춰서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지금 서울시에 노인 인구가 2분기 기준으로 하면 약 13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에 대해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노인 관련된 대책이 과연 있습니까, 노인 의료에 대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의료원 자체로 가질 수 있는 계획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 의료원 자체의 노인환자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60~70%에 도달할 정도로 커서 저희 진료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노인 인구에 대한 저희들의 접근방법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부병원도 그렇고 서남병원도 약간 변화가 와야 되겠지만 특성이 노인전문으로 되어 있는 게 북부, 서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런데 서남병원이 물론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출발은 했는데 이동 거리라든지 지역개념에서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이라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이병해 위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아, 그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사실 노인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을 보면 노인 대상 진료서비스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노력하고 있지만 줄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해 위원 특히 노인들이 치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노인 이동치과진료가 실적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감소를 시키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치과진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노인을 얕보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하던 사업을 국가에서 어르신치과사업으로 해서 65세 이상 되는 틀니사업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들을 국가에서 보험으로 다 가져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전에 했던 방향과 다르게 가능하면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 그다음에 전에는 틀니사업에만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틀니가 아니라 틀니를 할 수 있게 이 전체 구강에 대한 치료를 해 드리는 게 맞겠다고라고 지금 사업을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실적이 떨어지는 맛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정비해서 전에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해서 이달에 보면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 20% 수준밖에 안돼요. 과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숫자개념으로 따지면.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인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노인들이 데모를 한번 할까요? 이것 아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닙니다. 위원님 보신 데이터는 틀니사업에 대한 데이터라서 굉장히 적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신 데이터가 2016년에 161개인데 지금 3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분명히 맞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넘어가서 틀니는 저희가 접고 오히려 검진 및 진료사업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병해 위원 취약계층 보통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사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진료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오전에 35억 자체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의견을 밝혔는데 서울의료원은 그런 계획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그냥 소위 말한 진료비를 줄여준 액수가 현금으로 10억 이상 되고 대부분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60억 정도 해당되어서 전체예산을 따져도 보라매보다 결코 적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저희 서울의료원이 의료급여계층의 환자를 보는 퍼센티지가 3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 병원 존재 자체가 급여환자 그렇게 공공적인 일을 하는 병원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병해 위원 그리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 제가 노인 관련되어서 자꾸 질의해서 왜 노인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대피해노인의 진료 건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학대피해노인이 줄어서 그러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료원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전체 보조금 부분에서 제일 큰 병원이잖아요. 제일 큰 병원이 모범을 보이면 관리하는 또는 병원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핵심모델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 직원을 죽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해서 이익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인원을 많이 감소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전체 직원 수 60명 정도 2020년까지 4년간 증

원하고 조직관리를 혁신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적은 직원이라든지 또는 관리직을 줄여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익금을 내겠다 그런 체제로 생각해서 많은 인원을 감소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복근 부위원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줄어들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인 상태에 계약직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이고요. 아마 다음 의회 업무보고 때는 이게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서 여기에 드러나지 않고 계약직으로 됐던 분이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이 표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게 정원이 다 나와서 부족하지 않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해 위원 서울의료원 포함해서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 복지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원 및 직계가족에 대해서 할인을 많이 해 주고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러면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것을 본받아서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좋은 모델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빨리 결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특이한 모델은 빨리 받아들인다고, 다른 병원도.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모범적인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게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권익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의 권유사항에 포함되는 정도에 한해서만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특이하게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면도 좀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2차 다음 연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복근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장소도 비좁고 많은 기관들이 행감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마음이 더 바쁘고요, 이렇게 되는 건 정확한 행감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스피드 있게 진행할 테니까 답변도 스피드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께서 오전에 자료요청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한 가지밖에 안 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진행에도 조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이 3년여에 걸쳐 약 3억 2,000만 원 횡령사건 아시죠?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은평병원이 은평구청으로 수탁을 받는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은평구청에서 저희 병원에 2008년부터…….

○김창원 위원 수탁받는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네, 받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을 정신과 전문의한테 재수탁을 주시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재수탁주지 않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저희 병원에 전문의 한 명이 주 1회 4시간 나가서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나 회계보고라든가 이런 거는 은평구청이기 때문에 은평병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전체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위ㆍ수탁 관계에서는 저희 수탁업체에 1년 예산을 전체 주고 수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복지센터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평병원장이 전문의에게 맡을 수 있게 권한을 주고 그것에 대한 지도관리해야 될 권한도 은평병원 원장님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은평병원장 남민** 현실적으로는 전체 예산을 구청에서 통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김창원 위원**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면 3년 동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횡령해도 되는 거예요?

○**은평병원장 남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구조인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것 때문에 전체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위수탁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명확하게 형식적인 내용적인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무업무를 정신과전문의가 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상적인 위ㆍ수탁 관계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 업무적인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지도관리 안 되는데 그러면 은평병원이 뭐하려고 맡습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저희가 2008년부터 맡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맡아야 하는 법적인 위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기사가 난 게 2017년 4월이고요 그 이후에 은평병원의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또 볼까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받으셨죠? 정신병원에 CCTV가 너무 과하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관찰실, 복도, 집중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병실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일반병실, 처치실, 면담실은 물론 심전도 검사실까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받으셨고 또 한 가지는 사물검사를 매주 1회 하셨나 봐요. 맞죠?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런 것도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그 부분은 안전사고라는 부분들을…….

○**김창원 위원** 안전사고 좋습니다. 정신과 관련되니까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같은 세상에 심전도실 같은 이런 데까지 굳이 CCTV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심전도실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처치실에 있었는데 심전도를 처치실에서 찍었던 상황에서 문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창원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나오시지는 말고 회계비리와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김창원 위원** 임상연구보조금이라는 게 있네요. 알고 계시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건 수당인가 보네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수당입니다.

○**김창원 위원** 수당인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수당입니다. 수당이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연구라든지 그런 걸 고취하기 위해서 10여 년 전부터 운영돼 오던, 모든 시립병원에 공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어디에도, 이 자료 어느 자료에 규칙, 임상연구비 지급에 대한 규칙, 기타 모든 자료를 봐도 수당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제가…….

○**김창원 위원** “병원장은 임상연구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계획서 설명회 및 중간발표회,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연구보고서집을 발간하여야 하나…….” 수당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걸 안 하셨겠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 했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연초에 임상수당을 받기 원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연구계획서를 받고 심의를 하고 연말에 또 그 계획, 책을 만들고 그런 기본 프로세스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연구비에 대한 추후 집행내역 이런 건 왜 확인하시지도 않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김창원 위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절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처럼 그렇게 수당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2013년에 사실은 임상연구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상연구 지급에 대한 지급률 1할 계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임상연구계획서 작성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사실은 많이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본인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직무에서는 제척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그렇습니까?

○김창원 위원 그런데 연구위원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소속된 심사위원 또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물론 외부위원들이…….

○김창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공무원은 본인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직무에서는 제척되어야 되는데 어느 기준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도 충족되지 못하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김창원 위원 또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그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하셨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구체적인 회의록은 작성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김창원 위원 구체적인 회의록이라는 건 그 참석자들이 한 멘트까지 다 남기는 게 회의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상연구비와 관련된 연구는 어린이병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죠? 많은 병원들이 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3개 시립병원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인이 잘못 인식하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수당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수당에 대한…….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당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척돼야 되는데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표절률 15% 이상인 논문이 다수입니다. 본인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표절률이 50% 넘는 것도 있어요.

또 볼까요? 저는 이거 보고도 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과세가, 모든 소득은 과세하게 되어 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세이고 어떤 분들은 비과세인가요? 원장님 마음대로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서울시 감사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과세하기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김창원 위원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상황은 관행이라는 형태로 인해서 자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임상연구비 관련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좀 더 개선해야 될 게 있다고 느끼고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 가지 수당이라 하지만 세금 과세 부분도 더 투명하게 해서 심사위원들도 외부위원들을 주로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임상연구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병원만 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병원들이 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북병원장님, 진료부장님이 언제 언제 진료하시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진료부장님 정기진료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합니다.

○**김창원 위원** 주 1회만 합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현재는 정기진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주일에 한 번인 진료 날 외래강의 이런 것들이 굳이 잡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매주 월요일에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래진료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왜 겹치는 거예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아마 그날은 외래진료가 없이 외부 갔다 오고 진료를 그날은 안 하고 다른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심지어 진료부 소속의 어떤 분은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3시부터 4시까지 외부활동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하루에 오전 오후 낼 거면 연가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재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진료부장 전결사항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원장까지 결재를 받고 출장을 가도록 그렇게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원장님의 외부활동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김창원 위원** 저는 많은 원장님들이 외부강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리원칙 규칙에 맞게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원장님 오시기 전 2016년도에 10건이었는데 지금 원장님 1년 되셨는데 19건, 진료부장이 20건.

어린이병원 원장님은 3년간 251건, 이건 원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의료진이 다 해당되는 거죠, 진료부까지 해서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해야 치료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월 3회 6시간이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거 외의 다른 것들은 원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어 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고요. 간부 과장급 이상은 최대 월 1회 이하로 가게 돼 있고 과장이 아닌 경우는 월 2회까지를 허가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발달센터 현안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하는 분위기로 있는데요. 다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소아정신과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병원이 아니면 심사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좀 있고요. 또 아이존이라는 소아 장애 아이들에 대한 자문도 보건소에서 저희 병원으로 많이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더 많이 줄일 수는 없다,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외부강의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없습니다, 저희는.

○**김창원 위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걸 최소화하자는 취지인데 그냥 관례적으로 잦은 외부강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잘 알겠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진료나 치료 양도 좀 늘려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거버넌스라든지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환자 치료와 진료가 기본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물론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보다도 미달해서 가고는 있지만 좀 더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여기 아까도 연구비 보조금도 그랬고요 이 외부강의 활동도 전 병원이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공무원, 재단에서도 이 문제로 징계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진행하되 그 규정에 근거가 없이 나가는 게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수정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래야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복근**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한참 피곤할 텐데 PPT 한번 틀어주실래요?

(PPT 영상)

네, 됐습니다.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 저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결핵사업을 위해서 결핵협회가 과거에도 오랫동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그 결핵협회의 가장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씰 판매 사업이고 위원님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런데 저게 물론 원장님이 소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결핵협회에서도 요즘 너무나도 등한시하는 것이 사실이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과거하고 달리 요즘 결핵협회가 활동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 저분들이 예산을 9억을 세워놓고 지금 5억 8,000만 원어치밖에 판매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서서 결핵협회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뭔가를 한번 살려보겠다, 또 특히 13개 시ㆍ군 중에서도 서울시 결핵협회 환자가 제일 많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울시 인구가 많고 또 노숙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서울시지회가 가장 업무량도 많고 대상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 우리 서울시립 13개 병원에서도 협조를 해 주면 되겠다는 뜻에서 저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님, 지금 크리스마스 씰 대금으로 얼마 구매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권장하는 수준인데 지금 이걸 보고 나서는 느끼는 바가 많아서 올해는 조금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우리 어린이병원 원장님은?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서울시 차원에서 각 사업소라든지 병원들이 협조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병원 자체예산이나 그런 걸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백진 위원**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병원 직원들 1인당 돈 3,000원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하나의 책임회피밖에 안 되지.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고 한번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우리 은평병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저희 병원에서는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제출한 거에 의하면 2015년에는 63만 원, 2016년에는 52만 원 정도.

○**성백진 위원** 제일 양호하신 것 같네. 앞으로는 직원들 1인당 3,000원이라니까 같이 공동으로 동참할 수 있죠?

○**은평병원장 남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보라매병원 원장님?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저희 죄송스럽게도 1년에 50장 정도밖에 구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이 한 장 정도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감사합니다.

동부병원 원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네, 별도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별도로 더 신경 써서 전 직원들에게 한 장씩만 해도 3,000원씩이니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북부병원 원장님?

○**북부병원장 조숙** 저희도 독려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서남병원 원장님?

○**서남병원장 박태환** 저희도 직원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장애인병원 원장님?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저희는 직원이 51명인데 전부 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결핵 퇴치에 물론 협회도 협회지만 스스로 우리가 하나씩 씰을 사주는 것이 독려차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에서 자료가 안 오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점심 때 계속 연락하고 해서 아마 거의 자료가 다 되어 갈 겁니다.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대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는 보조금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서북, 은평, 어린이병원은 시청에서 직영하는 직영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보조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서북병원장 박찬병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경우는 있어도…….

○성백진 위원 그러니까 결핵을 위해서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서북병원장 박찬병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 예산 4억 5,000을 받아서 결핵안심벨트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국립결핵병원들하고 같이 네 개 병원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수탁사업으로 치매지원센터 사업을 은평구에서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잡다하게 다 합치면 국비가 1억 정도고 시비 1억 정도 그 정도 사업비…….

○성백진 위원 그러면 2억 갖고 결핵퇴치사업을 하고 환자…….

○서북병원장 박찬병 결핵퇴치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핵안심벨트사업이 가장 크고 그 외에는 취약계층 결핵환자를 위한 지원이나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고요.

○성백진 위원 지금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1년 정도 됐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1년 됐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달라진 것 없습니다.

○성백진 위원 환자는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환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성백진 위원 비슷해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결핵환자는 그렇습니다. 병상가동률만 조금 늘었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러면 새로 오셔서 뭔가를 새로 해 봐야 되겠다는 저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결핵환자들이 중간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결핵환자들의 많은 분들이 노숙환자들이 많습니다. 노숙인들이 많고 술 중독 이런 분들이 많아서 중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탈하는, 그래서 이탈하는 환자들을 줄임으로써 완치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최근에는 이탈률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본 위원은 서북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거기 결핵환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갔었고 제가 32년 전에 결혼식도 그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결핵환자에 대해서 제가 따뜻한 정이 많고 뭔가 결핵퇴치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계신 임직원들도 씰 한 장이 별 것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데 덜 쓰시고 독려하셔서 한 장씩이라도 더 팔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전부터 거기를 못 갔어요, 봉사를. 제가 114 사랑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 사람들이 영양식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것을 먹어야 몸에 좋다고 해서 매달 갈 때마다 금액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 해서 갖고 가고 해서 제가 15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결혼식도 그 교회에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다르게 결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또 결핵협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CF를 하나 찍은 것도 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각별히 거기에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5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자료…….

○성백진 위원 자료가 전혀 안 왔어요. 자료가 왔으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복근 병원 원장님들, 각 병원에 연락들 했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늦으면 위원님 질의하기가 불편하실 텐데.

○서북병원장 박찬병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거기에 2015년, ′16년, ′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공통자료.

○성백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적용해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성백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서북병원 장례식장 공유재산임대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개인사업자가 맡았다가 지금 단체 법인으로 다시 갱신되면서 먼저 하던 분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생긴 갈등이 있어서 원래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지연이 돼서 그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저희가 청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청구해서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지금 일부 받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백진 위원 받고,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영업을…….

○서북병원장 박찬병 새로운 사람이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백진 위원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성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성백진 위원 원장님한테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최하위예요. 그런데 병원 건물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가 하위될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위가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글쎄요, 올해 만족도조사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요 작년에는 아마 상위권이었던 것 같은데…….

○성백진 위원 상위권이 아니라 최하위권이라니까요, 86.4%?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올해 말씀하십니까?

○성백진 위원 올해 것 아니고 2016년도 것, 2015년도가 84.4%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하위권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올해 조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발달센터 건립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해서 여러 가지 병원방문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 위원 이건 병원 온 환자들, 보호자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텐데 그것은 아니지. 만약 어떤 소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를 테면 재활치료라든지 발달장애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 위원 굳이 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병원이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 병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주민들에게, 물론 치료를 더 잘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서비스가 앞장서게 되면 환자 병이 저절로 낫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간호사나 의사들께서도 피곤하니까 약간 불만 섞인 저것이 있어서 환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권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피곤하고 저거하더라도 다시 한 번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환자를 맞이해 주면 이런 일이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성백진 위원 간부명단을 보니까 진료부장님하고 공공의료사업단장님하고 같은 대학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글쎄 저는 상근이 아니고 주 3일 정도 수탁기관에서 파견되어서 병원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기 채용된 그 두 분은 오래 전부터 같이 8~9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이 비슷한 나이 때라 아마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성백진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야, 이것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뭐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같이 둘이 일을 하면 능력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복근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입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어린이병원에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프로그램이 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 내용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치료비 관련 민원이었는데 조기발달장애에 치료효과가 제일 좋다는 ABA조기집중치료 프로그램에 11명이 운영되는데 그중 8명의 수납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나서 일인당 200여 만원 정도의 미수납이 발생해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인지하고 보호자분들한테 청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니까 11명 중에 3명은 제대로 했다는 겁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오더는 누가 내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오더는 의사가 냅니다.

○권미경 위원 매번 내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매번 내지는 않고 재활치료라는 게 한번 내면 똑같은 반복적인 재활치료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번 내고 그것을 재활치료사가 치료를 했으면 거기서 클릭을 해서 치료가…….

○권미경 위원 환자가 매일 와서 치료를 받는 거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매일 옵니다.

○권미경 위원 매일 오지만 매일 처방을 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사실은 거의 똑같은 처방입니다.

○권미경 위원 거의 똑같은 처방이기는 하지만 매일 내지 않고 계속 루틴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8명은 안 냈고 3명은 제대로 내서 그게 몇 개월 동안이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거의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5개월 정도 계속 누락된 것을 치료사에 의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의사분이 오더를 냈는데 치료사분이 한 치료세션에 대해서 그 코드에 대해서 곱하기 4를 입력해야 되는데 곱하기 3을 입력한 게 몇 달이 지나서 저희가 발견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치료사가 처방을 내는 데 있어서 오더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것을 3으로 했기 때문에 치료사의 잘못이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게 딱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권미경 위원 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명확하게 잘못이 발생했으면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병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굳이 잘못을 따진다면 치료사 분께서 4번의 입력을 하지 않고 3번의 입력을 한

게, 4로 입력하지 않고 3으로 입력한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보지만, 또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병원이 지금 EMR이 되는 환경이 아닙니다. 전자의무기록이 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오더와 치료사가 치료받는 오더, 또 원무과의 수납관계가 약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수기로 하다 보니까 좀 발견이 늦어져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권미경 위원** 매번 처방을 낸 것은 수기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의사가 치료 오더를 내게 되면 그걸 치료사가 치료하게 되면 치료한 것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3번을 치료했다면 3번을 입력하게 되고…….

○**권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기처방으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OCS는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OCS는 있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종이차트는 아니지만 OCS 입력은 가능합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또…….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납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치료사가.

○**권미경 위원** 병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가 모두 전반적으로 전산 EMR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더블체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더블체크하지 않고 재활치료의 특수성 때문에 한번 오더가 세팅된 것을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스크리닝하는 과정이 없어…….

○**권미경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셔도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잘못하신, 분명히 병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장기간 동안 오더 입력하고 그걸 수행하는 데서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환자의 생명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약 처방이나 아니면 다른 직접적인 치료행위에 관한 것이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렇게 보셔야지, 사안의 중대성을 보셔야 되지 않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몇 개월 동안에 받지 못한 치료비를 다 받으셨죠? 지금 개인한테 다 청구하셨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청구를 사실 저희가 개인병원이거나 사설병원이라면 병원장 직권으로 감면조치한다든지 할 수 있었지만 병원 치료비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 조직상 세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처리를 안 한다면 또 더 큰 문제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보호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러 번 사죄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사죄를 한 걸로 다 마무리 짓고 세입처리 청구는 청구대로 하고 이 관련돼서 바꿔서 입장을 생각한다면 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 받아들여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부모들은 계속 어린이병원에 다녀야 되는 지체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장애 어린이 중심적인 어린이병원에서 일한 지가 꽤 됐는데 애틋한 마음도 많이 갖고 있고 부모님들의 절절한 심정을 많이 알고 있고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권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직원들과 의사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 감사과에서…….

○**권미경 위원** 내부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감사과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래서 한 달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적으로 어떻게 개선조치라든지 처분통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한 건가요? 나와 보시죠, 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권미경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지금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병원이 직영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그건 감사부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보건의료정책과는 전혀 모르나요? 언제 통보를 받나요? 통보를 받기는 하나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일반적으로는 감사부서에서 내용이 정리되면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겁니까?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 위원 전혀 모르신다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권미경 위원 체계가 이렇게 되나요? 어린이병원장님, 이게 담당 과에도 전혀 안 가나요, 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담당 과에 보고나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없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제가 보건의료정책과장님께 보고한 바는 없고 다만 어린이병원 담당직원이 보건의료정책과에 있습니다. 제가 8월 말에 의회 전문위원께 보건의료정책과 그 직원과 저와 진료부장이 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누구한테? 의회에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의회하고 그때 보건의료정책과 직원도 같이 배석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보건의료정책과 직원이 배석했으면 보건의료정책과장님한테 보고 안 한 건 뭐죠? 과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직영이든 어디든 보고 안 하면 전혀 모르는 시스템인가요? 이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거나 알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제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인데 전혀 보고를 못 받고 보고도 하지도 않았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린이병원이 저는 이게 본인들이 수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봐요. 다른 것도 물론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 방안에 더블체크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이를테면 담당의사와 치료사가 치료가 이루어지면 한번 확인하고 다른 의사와 치료사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고…….

○권미경 위원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리고 얼마가 수납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무과 직원도 같이 해서 총액이 얼마나 맞는지 그런 식으로 좀 체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권미경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비급여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건강보험 쪽에서 아마 청구하거나 이런 거였으면 걸러졌겠죠. 비급여로 다 환자한테 본인부담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고요. 사실 저희가 하루 치료비가 15만 원…….

○권미경 위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병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차원에서도 충분한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환자 보호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질 걸로 보입니다.

은평병원장님, 지금 은평병원도 이거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똑같나요? 금액이나 이런 발생하는 것들이 다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각 병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의사가 오더를 입력을 하면 그걸 부모님들이 수납을 하고 그 수납한 결과를 치료사가 체크해서 그걸 횟수만큼 체크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은평병원도 이 비용이 다 똑같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비용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수가를 조정하는 과정이 좀 틀렸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매일 수납을 하는데 15만 3,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은평병원도 마찬가지인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권미경 위원** 프로그램 진행되는 건 다르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직원들 가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입는 가운은 세탁을 어떤 식으로 하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세탁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직원들 가운도 세탁업체에서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권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다 직원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맡기고 찾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권미경 위원** 다른 서북병원이나 은평, 어린이병원 다 마찬가지인가요? 직원들 가운은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닌 데가 있나요? 본인들이 빨아오고 이러는 병원이 있나요? 없습니까? 동부병원도 병원에서 다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은평이랑 서북병원이 직영병원인데 서북병원장님, 직원들 3교대 근무하죠, 병원이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야간에 야식이 나가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 병원은 지금 야식을 제공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왜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예산이 삭감돼서, 과거에 주다가 예산 삭감돼서 그 다음부터는 못 주고 있는 게 몇 년 됐고 그래서 내년…….

○**권미경 위원** 야간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약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권미경 위원**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아침 7시까지 아무런 야식도 없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은평병원은 어떻죠?

○**은평병원장 남민** 서북하고 마찬가지로 몇 년 전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일괄 예산삭감으로 지금은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어린이병원도 교대근무가 있군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은 그 예산으로 하지는 않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근매식비인가 뭐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1인당 1,500원 정도의 간식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1인당 1,500원짜리 간식이 어떤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아마도 샌드위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권미경 위원** 서울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도 야식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야식비만 지급하고 야식은 나가지 않는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야식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와서 드시라고 하면 드시는 분만 혜택을 받으니까 아예 야식비를 책정을 해서 그냥 본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액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액수 확인하시고요. 다른 뒤에 계시

는 동부병원장님은 어떻죠?

○**동부병원장 김현정** 저희도 야식비 지급하고 있고 또 조식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북부병원은요?

○**북부병원장 조숙** 저희도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야식이 다 나가지는 않는 거네요. 비용으로 지급하는데 직영병원들은 예산을 다 삭감해서 아무 것도, 야식비조차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권미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언제부터 이런 거죠, 서북병원장님?

○**은평병원장 남민** 2016년부터 그렇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작년…….

○**권미경 위원** 2016년부터 그러면 얼마 안 된 거네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직원들이 10시부터 7시까지 밤에 9시간 넘게 일을 하는데 야식 하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의료진들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장님?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그래서 예산 때마다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복근**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서울의료원장입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하는 것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계획을 한번 좀 해 보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시하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권역의료센터를 제대로 지어서 진행을 해도 좀 빡빡한 시간인데, 그 안에 법이 개정이 되고 환자안전법 이런 여러 가지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김혜련 위원** 이거 ’19년 12월에 다 완성되겠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너무나 비용이 늘어나서 이건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돼요, 의료원이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아무런 문제없이요? 지금 최초 대비해서 30개월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매몰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봤을 때 배 이상이 늘어난 것 같은데 최초가 1,700억 원대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170억. 1,700이 아니고요.

○**김혜련 위원** 1,700억 원, 맞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얼마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처음에 저희가 한 게 170이었고요 현재 투심에 통과해서 갔던 것은 130억 정도였습니다.

○**김혜련 위원** 130억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총 얼마, 지금? 3,500? 350?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350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디양한 숫자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김혜련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이것 서울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기본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초에 투자심사 때는 사업비가 142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서 병실의 규모가 커지고 법적인 사항들을 충

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77억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금년도 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공사발주를 해서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할 수 있도록 지금 감독하시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것해서 잘 가도록 협의를 잘하십시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남병원이 위탁받으시면서 여기는 조직관리가 문제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원래 이대목동병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실 거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 가셔서 서로 문제는 없는지 병원 안에서 그런 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서로 가치가 다르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환자들이야 좋은 조건에서 계속하겠지만 조직면에서는 기존에 이대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 있었고 또 의료원에서 파견하신 선생님과의 가치충돌 같은 것이 없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 문제없었어요? 임명권자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점이 많이 걱정이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방문도 했고 거기 노조위원장님도 계속 만나 뵙고, 최근에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서남병원 포함한 전부 다 같이 체육대회도 했고요.

○김혜련 위원 서로 통합하셨나요, 소통하시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필요하면 제가 찾아가서 직원들하고 전체 한번 대화도 나누어볼 생각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같은 것들도 기존에 이대목동병원에서 했던 것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의견을 조율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병원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입니다.

○김혜련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시사항이나 방침에 의해서 발달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여기 보니까 저번에 오픈하신 거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개원식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못 가서, 지금 4대 정책과제 도출하는 것을 보니까 센터운영과 전문적인 진단강화, 가족지원 및 부모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까지 4가지를 아마 정책목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각 구에 부모회가 아주 잘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병원이 새기면서 이 부모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할 때 그 동네뿐 아닌 각 25개 구의 부모회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이것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셨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독립된 어떤 하나의 건물로서 저희가 발달장애 치료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보고요. 하나의 허브기관이자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아직 고민되지 않았다고 하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셔서 이 병원에서 추구하시는 4대 정책과제도 도출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서 내용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은평병원이요. 2017년 세출 집행현황을 봤어요, 업무보고 6쪽이요. 거기 고객중심의료서비스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0으로 남겨두셨어요. 이 부분 집행률이 연말 예상으로 3% 정도 됐는데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은평병원장 남민 대개 발생을 하면 일종에 보상비, 위로금 명복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요 다행히 사

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김혜련 위원** 나중에 사고가 발생 안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평병원장 남민** 다시 비용처리되어서 서울시로 귀속이 됩니다.

○**김혜련 위원** 귀속하는 거예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김혜련 위원** 거기 0이 돼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서북병원이요. 업무보고 9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서북병원이 결핵현황 분석이라 든가 개선활동에서 빅데이터 기반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어요. 서울시 결핵현황 분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대상은 자치구 보건소, 동주민센터, NGO단체 또는 지역 관계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결핵예방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27.4%예요. 최근에 동주민센터에서 결핵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혹시 들으셨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동주민센터에서요?

○**김혜련 위원** 네.

○**서북병원장 박찬병** 개인이 결핵에 걸렸다, 집단발생이 아니고?

○**김혜련 위원** 어쨌든 서울시 결핵현황 분석이거든요, 이게. 이거에 대한 활동사업이에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이 사업은 서울시 전체의 주소지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다빈도 지역이 어디냐.

○**김혜련 위원** 그러면 수집도 하실 것 아니에요? 즉각 결핵환자가 발생했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집이 되고 여기에도 보고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별도로 보고받은 기억은 없고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서울시 과장님, 서울시 결핵현황 분석 및 개선 활동입니다. 최근 동주민센터에서 결핵환자 발생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저도…….

○**김혜련 위원** 못 들으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양숙** 과장님은 본인의 소속과 직함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김혜련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결핵과 관련해서 서북병원이 그런 데이터도 수집하고 현황도 같이 가지고 가고 결핵을 담당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빅데이터 기반해서 그런 현황 분석을 하는 곳이고 사업대상은 자치구 보건소, 동주민센터입니다.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자치구, 동주민센터 그런 곳에서 결핵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뭔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소식을 못 들으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김혜련 위원** 최근에 결핵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죠? 모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집단으로 모네병원…….

○**김혜련 위원** 집단으로 아주 심각한 결핵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걱정이네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서북병원장 박찬병** 위원님, 서북병원장입니다.

결핵 관련한 서울시청의 담당부서는 생활보건과입니다.

○**김혜련 위원** 생활보건과인데 일단 앞으로 정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에도 정책적으로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병원과 관계는 없지만 동주민센터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44명의 수강생 중 12명의 6개월 미만의 아기들이 결핵이 걸렸습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지금도 계속 상담하고 있어

요. 어디서 발생했냐면 동작구에서 발생했어요. 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보건소에 이미 보고가 됐었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서북병원이 결핵병원이고 서울시 결핵현황 분석에 대한 개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앞으로 기관 간에 정보 공개를 하고요.

○김혜련 위원 정책관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정보를 획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시민건강국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 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북병원은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아기들이 9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어야 되고 이 부모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이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를 몰라요. 서울시의 체계가 결핵을 담당하는 병원이 있고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보를 안 알려줘요. 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토하는 아기들한테 약을 먹이는 실정이 앞으로 5년간, 영유아가 결핵에 걸리면 5년 동안 피검사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향후에 서북병원이건 어디건 그런 것에 대한 네트워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찾동사업에서 사례관리 중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북부병원인지 서울의료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회사업실 운영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 안에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대상의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대상이 어떤 일로 인해서 사회사업실에 의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여기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그 대상이 어떤 유형의 병을 가지고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찾동이 65세 이상과 0세 미만의 사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료제출 엉망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안 나오나 봐요. 고민입니다, 지금 이것.

시간이 일단 다 돼서 제가 좀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서북병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일이다 싶지 않으세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생활보건과 쪽하고 좀 더 시스테믹(systemic)하게 접근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게 대부분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빨리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은평병원하고 서울의료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제점, 먼저 은평병원 원장님.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은평병원 원장입니다.

○박마루 위원 주 원인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개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관리감독의 잘못인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 세 가지 다 일정부분 관여가 되고 있는데요.

○박마루 위원 그중에 가장 그래도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은평병원장 남민 일단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어떤 게 문제이시죠?

○은평병원장 남민 전국의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수탁 관계를 맺고 그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고 센터장을 파견 보

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매달 상임 팀장과 회계담당직원의 예ㆍ결산을 보고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수탁업체에서는 한편으로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100% 다 수당에 관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도 주의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도 사실 같은 입장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지 간에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서 제일 잘못이 크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개선책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까 은평병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유가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다들 아니까요, 그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혹시 본 위원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강남하고 은평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할 때 서울의료원이 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비상근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이 사업자를 냅니까, 안 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안 냅니다.

○박마루 위원 안 냅니까? 은평은요?

○은평병원장 남민 센터장 개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의료원 원장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독립으로 직접적으로 다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독립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센터장 이름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 센터장의 역할은 사실 거기가 끝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자분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나요? 그 CEO가 누구인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게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그게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렇죠. 그게 원인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팩트가. 비상근에다가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위탁받은 서울의료원, 은평병원에 해서 개인사업자를 내서 그 밑으로 직원이가 있고, 그러면 그 센터장이 문제가 되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게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문제 중에 그겁니다. 아니, 센터장은 비상근에다가 그러면 위탁에 문제가 생기면 위탁에 관련된 은평병원 책임 안 지고, 서울의료원 책임 안 지고. 정확하게 따지면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책임추궁이? 지금 우리 손해배상을 한다고 그러면 의료원하고 은평병원이 책임지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법적인 책임의 한계는 그렇게 독립회계로 되어 있고 비상근이고 저희 관리책임이 충분히 닿지 않지만 법적책임은 서울의료원 쪽으로 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강남이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관리감독 책임도 져야 되고 변상에 대한 책임도…….

○박마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가 지금 없잖아요.

집행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얘기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마루 위원 서울의료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강남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의료원이 책임진다, 정확히 들으셨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박마루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앞으로 변제…….

○박마루 위원 책임지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어떤 것이든 하실 거예요, 진짜?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박마루 위원 어떤 조치든 하실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법적인 부분에 책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분명히 본 위원 기억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고요, 계속 체크할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은평병원 원장님, 은평병원도 지금 서울의료원장님하고 같은 상황이십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조금은 좀 다릅니다. 저희 병원이 서울시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업을 은평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종에 위탁을 준건데 그걸 다시 서울시에 위탁을 준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상반기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게 문제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해서 광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죠? 자살예방센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터진 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17일에 따질 문제입니다, 이거 시정질문하면서. 그렇게 상반기 때 경고하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이제까지 조치가 안 취해졌어요.

그리고 서남병원 문제, 이거 인증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지난번 우리 서남병원 위탁을 할 때 서울의료원하고 이화의료원하고 같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 3.6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점수 차이가. 몇 점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명분은 공공성을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서 이걸 보니까 이게 언제 체결이 됐냐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2017년 8월 24일 서울시장과 서울의료원 원장님 두 분이 약정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증서’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정책과요. 그래서 제8조를 보니까 “서울의료원은 연도별 의료인력 운영계획 및 병원장 포함 진료과 의사 총 8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계획, 파견인력 운영계획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운영계획, 병원 의료인력의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와 합의하여 12월 말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이 13일이죠?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이거 지금 다 이행됐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주시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인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마루 위원 그 인원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간 겁니까? 서울의료원에서 나간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에서 나갔습니다.

○박마루 위원 8명이 나갔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초기에는 9명까지 나갔고요 이제 8명 나가있습니다. 전문의 8명 나가있습니다. 그 외에 관리부장 그다음에 간호부장 또 나가있고 기획실 직원도 지금 나가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서울의료원이 다 책임지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계셨던 분이 그리로 파견나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인력을 뽑아서 나간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파견 나갔습니다.

○박마루 위원 파견 나갔죠?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웁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딱 그거였어요. 예전에 서울시하고 이화의료원하고 계약된 게 있습니다, 공증서. 여기에 보면 이화학당은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제4조 “협약기간 동안 병원장의 제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전액과 제2항에 4개 진료과 그리고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사 8명에 대해 수당 포함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거대로 했으면 인건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한 거예요, 아니면 이화학당이 다 한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이화학당이…….

○박마루 위원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 약정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파견 나갔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어차피 또 다른 여덟 분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료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거 수익금으로 수익사업으로 하나요, 보조금 받아서 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 저희 병원의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체 수익으로 자기가 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거 정확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정확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보조금 나간 것은 운영비로만 쓰고 있나요, 아니면 의사분들에 대한 비용은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걸 다 충당하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 운영보조금은 88억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저희 예산의 5%,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인건비 전체 포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를 서울시가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사업에 한하여 필요한 인원이 달라붙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몇 개 정도는 인건비가 따라붙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진료를 하는 의사분의 월급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 위원 보라매병원도 똑같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은 운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본보조는 의료기기고요 운영보조는 어떤 데 써야 된다는 그런 거에 제한은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여기 행감받는 다른 기관 병원들은 다 똑같나요? 어떠나요? 이 부분 지금 원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팩트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이제까지 역대 한 번이라도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인정을 할게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게 인건비로 단 얼마라도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인건비건 간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박마루 위원 모든 수익금을 그걸로 했다면……. 그러면 제가 수익금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남겨서 의사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그걸 다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확인절차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이 그 정도 나오나요? 8명에 대한 인건비면 그러면 병원장까지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1년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10억 조금 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8명이나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게 가능해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저런 거 따져서 운영비에서 “여기는 수익금이 많이 나는 병원입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의 없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래서 오늘…….

○박마루 위원 아니, 정확히 하세요,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혼나는 것보다 벌었다고 혼나서 조금 낫긴 한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익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환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게 제도화되면서 들어온 수익, 그리고 신포괄수가라고 하는 것으로 생겨서 난 수익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많은 수익이 이번에 생겼고요.

두 번째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부병원이나 북부병원을 15년 전, 16년 전에 저희가 위탁했을 때도 똑같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남병원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박마루 위원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할 건데요, 동부병원도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지금 동부병원의 성과급도 엉망으로 지급을 했어요. 한 고위직이 결국은 성과급 평가해서, 그래서 시정명령 받은 게 2017년부터는 서울의료원의 평가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이 맡고 있는 위ㆍ수탁병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1차 질의를 한번 다 돌았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2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시 반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미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권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권미경 위원 오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빨리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또한 한 건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지속될 예정이니까 시급하게 빨리 준비를 해서,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합니다.

○위원장 박양숙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자료가 빨리 와야 그것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1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301네트워크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모든 병원들이 다 301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9개 병원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북부병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북부병원의 노하우와 그런 것을 죽 리뷰를 해 보고 나서 어떤 한계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과장 뒤에 나와 계신 거죠? 그러면 북부병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북부병원장 조숙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오승록 위원 301네트워크 사업 올해 몇 년차죠?

○북부병원장 조숙 올해 4년차입니다.

○오승록 위원 4년차 됐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네.

○오승록 위원 핵심이 뭡니까, 이 사업의 플로어라고 그럴까요?

○북부병원장 조숙 일단은 복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환자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막상 취약하신 분들이 아팠을 때 본인이 혼자가 됐을 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환자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 저희 네트워크와 연락이 되면 이분에게 맞는 복지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 드리는 원스톱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 취약계층이 있다는 인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그런 데에서 또 복지관에서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기존에 301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병원에 보면 사회사업팀, 사회복지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저희도 공공의료팀이 있어서 기존에 해 왔고 현재 301네트워크 이외에도 공공의료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라든지 찾아오신 분들이 취약한 경우에 저희들이 감면을 해 드리는 그러한 업무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301네트워크는 저희가 발굴하는 작업까지도 포함하고 그리고 다른 필요한 복지쪽을 연결해 주는 것을 의료사회복지사가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해 드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예산과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과 조직이 확보되지 않고 어떤 성과와 실적을 내라는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죽 보니까 굉장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내는 과정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내년에 강남구만 빼고 아마 다 시행이 되죠. 찾동사업도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찾동사업이라는 것은 복지직공무원 1,800명을 뽑아서 다 동별로 배치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발굴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거기서 사례가 생기면 보통 복지관으로 인계하거나 보건소로 인계하거나,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통 거기서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저희 노원도 보면 최근에 만나봤더니 찾동에서 찾아낸 정신 관련 그러한 환자 치료해야 될 사람이 1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노원구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도가 심한 경우는 그다음에 답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고민이었는데 301네트워크 4년차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사업의 존재 중요성을 보면서 이게 병원하고 연계를 하더라는 거죠.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북부병원에 301네트워크 의뢰가 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이송도 하고 그런 거죠? 필요하면 치료도 하고 때에 따라서 수술도 하고, 그것도 어찌됐든 거의 무료로 하는 거죠.

○북부병원장 조숙 네.

○오승록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사업의 핵심은 결국은 전담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만큼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펀드라고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감사하게도 저희 인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몇 명 지원해 줍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세 명에 대한 지원을…….

○오승록 위원 그러면 5명의 인력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북부병원장 조숙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리고요?

○북부병원장 조숙 나머지 실제로 저희가 사업비가 드는데 사업비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2013년에 민간펀드를 연간 1억씩 받아서 3년 동안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펀드가…….

○오승록 위원 3년에 3억이면 1년에 1억씩입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네, 1억씩인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의료급여환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저희가 가능한 한 사회에서 있는 복지자금을 모든 것을 저희 펀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긴급자원이라든지 그런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의료사회복지사가 다 먼저 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갖고 있는 펀드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업무는 1억 원 이상의 일을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 펀드는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북부병원장 조숙 처음에는 민간펀드로 조성을 했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3년이면 펀드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그 펀드로 모은 자금은 긴급한 치료나 여기에 쓰이는 겁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아니요.

○오승록 위원 간병비 이런 걸로 쓰는 겁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의료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간병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송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품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은 의료비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애긴급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취약계층에 있는데 그런 걸 먼저 끌어당길 수 있으면 먼저 다 쓰고 아무 것도 더 이상 없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민간펀드를 써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의 전담, 이분들은 다른 일은 안 해요? 오직 이 일만 하는 거예요?

○북부병원장 조숙 그렇습니다. 저희 공공의료팀에 또 사회복지사가 더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301네트워크 전담자는 아니고요 301네트워크를 맡고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부터…….

○오승록 위원 그 5명이?

○북부병원장 조숙 네.

○오승록 위원 그러면 따로 공간이 있고 그런 겁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따로 301네트워크를 위한 공간이, 그리고 의뢰가 들어오면 이 다섯 분이 어찌됐든 역할 분담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이송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북부병원장 조숙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비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지금 어떻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년차 됐을 때 질적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 아프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여러 가지로 방치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간병인 역할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필요한 그러한 서류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대행을 해 드리고 또 이송도 해 드리고 또 가장 좋아하셨던 것들은 병원에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질적 연구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N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1인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심층면접을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분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301네트워크처럼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지원을 한다면 여러 가지 노인의 고독사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치매 같은 것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찾동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또 무슨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서 하나요?

○북부병원장 조숙 그렇습니다. 민간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중랑구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록 위원 중랑구요?

○북부병원장 조숙 네, 저희는 중랑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오승록 위원 아, 중랑구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북부병원장 조숙 네. 서울 아니라 구리까지 경기도 일부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복지관 같은 데서도 많이 오고요. 찾동사업이 시작되면서 작년에 노원구에서 35건 정도 의뢰가 있었고 중랑구에서도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사업을 주목해야 되는 게 찾동사업이 본격화되면 계속 또 발굴될 거라는 거죠. 계속 현장에서 복지플래너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막 발굴하잖아요. 그게 계속 더 의뢰가 아마 더 높아질 걸요. 그렇지 않아요?

○북부병원장 조숙 네, 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찾동에서 의뢰한 게 더 늘지요?

○북부병원장 조숙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옛날에는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의뢰했다면 앞으로는 찾동 쪽에서 의뢰하는 게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시장조사라고 하면 상당히 수요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민간병원은 생각할 수가 없죠, 아직은?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립병원이니까 일단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북부병원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담조직과 내가 보기에는 펀드입니다, 펀드. 아마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병원장 조숙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 다른 병원들 서울의료원 원장님, 301네트워크 사업 시작하고 계시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몇 년차나 됐을까요, 지금?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북부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담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닙니다. 저희는 전담조직은 없습니다. 공공의료팀 내에 속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건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은 한 4,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병원은 사실은 저희하고 거리 사이가 한 2~3km밖에 되지 않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중랑구 쪽에서 찾아가는 역할들은 북부병원이 주로 전담을 하고 저희는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데 주로 MOU 체결하는 식으로, 그리고 또 301네트워크에…….

○**오승록 위원** MOU면 어디하고 주로 체결을 많이 하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른 구청과도 좀 했었고요.

○**오승록 위원** 그 근처이겠죠, 다. 그러면 강북구, 성북구 이런 쪽인가요? 도봉구.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거기도 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복지재단하고 아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찾동을 갖고 있고 저희는 301이 있으니까 여기로 협력하자고 해서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전담조직은 아니고 공공의료팀에 다른 업무와 함께 하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몇 명이나 이 사업에 인력들이 배치돼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가 전체 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자체가 네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한 분 정도 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펀드는 어떻게 됐어요, 펀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 펀드를 저희는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LG유플러스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연간 액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 초부터 해서 그 펀드를 주로 이용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걸로 감당이 됩니까, 지금 의뢰 들어온 거 이렇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더 확대하려고 하면 계속 되겠지만 현재는 아주 활성화돼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오승록 위원** 펀드 조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쉽지 않습니다.

○**오승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어디 계시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오승록 위원** 301네트워크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조직과…….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서울의료원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공공의료사업단 안에…….

○**오승록 위원** 공공의료사업단이라고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 안에 사회복지실이 있고요 거기의 실장은 의사고요.

○**오승록 위원** 사회복지실, 원래 사회복지실 고유업무에 이걸 더 얹은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사회복지사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오승록 위원** 사회복지사 한 명의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건 아니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한 명 하고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나머지 진료비 지원은 외부펀드를 주로 이용해서…….

○**오승록 위원** 얼마나 외부펀드 있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 13억 8,100만 원 정도를…….

○**오승록 위원** 얼마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13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301네트워크는 아니고요.

○**오승록 위원** 당연하겠죠. 그 정도 들어가지는 않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저소득환자 진료비 지원을

그 정도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301네트워크에…….

○오승록 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 중에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혹시? 없지요, 북부병원 말고는? 은평병원, 서북병원 혹시 있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없습니다.

○오승록 위원 여기도 전담은 아니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전담은 아니고…….

○오승록 위원 펀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서북병원?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은 연간 한 3,000~4,000만 원 정도 펀드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여기도 전담조직은 아니고 기존에 사회사업팀이나 이런 데서 한다는 거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오승록 위원 은평병원도 비슷하시겠네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은평병원장입니다.

301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병원의 예산에서만 활용을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 다문화정신건강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서울글로벌센터나 기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제가 보니까 참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건. 아마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서울이 처음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좀 말씀 잘못드렸는데 전담하는 분 한 분은 저희 있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승록 위원 그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금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4,280만 원…….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 주고, 그러니까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은 전담 인건비 한 명씩 주고 북부병원은 5명 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죠? 다른 병원은 없으시죠, 인건비 지원받는 데가?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 한 명 받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장애인치과병원 몇 명, 한 명? 받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전담인력들 그렇게 있고. 일단 상황은 다 제가 들어서 알겠고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 김순희 과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 그러면 오승록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북부병원장님, 전담조직을 지금 4명…….

○오승록 위원 5명.

○위원장 박양숙 5명을 두게 된 부분은…….

○북부병원장 조숙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전담인원을 5명을 두게 된 부분은 병원장님의 결단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입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라서요 제가 처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을 때 취약한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조사에서 결론이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해서 인력이 다 오게 됐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그 부분은 그러면 병원장님이 판단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과장님이 조사를 하시든 확인하셔서 이따 오승록 위원 추가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내부감사 기관 지적사항 중에 구매업무 부적정으로 신분상 1명, 행정상 2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고 했는데 한번…….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까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제는 전기영동기라고 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데 문제였는데요, 대부분은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의료기기로 사용을 해야 되는

데 저희한테 판매한 업소에서 이걸 의료기기로 수입하지 않고 연구기기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알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영업상 기밀이라고 보여주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연구용으로 되어있는 의료기기를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해당 업체에게 이걸 다시 연구기기가 아닌 의료기기로 된 걸로 다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일말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입니다.

○이복근 위원 그 내용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이복근 위원 발달센터를 이번에 새로 지었지만 짓기 전에는 대기자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사실 대기자 때문에 발달센터를 짓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마지막 통계 내 본 결과는 재활의학과가 약 2,000명, 정신건강의학과도 한 1,500명 정도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중복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중복도 있고 그래서 실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도 상당히 대기자가 많아서…….

○이복근 위원 지금은 얼마나 돼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이복근 위원 지금은 얼마나 돼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지금도 마지막 조사한 것은 재활의학과가 한 1,000명 정도, 정신건강의학과도 1,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발달센터를 새로 건축을 했지만 의료진이 부족해서 그런 치료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정신재활치료가 사실 치료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사에 상당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가 재활치료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조직과에서 받은 인원은 발달센터가 되면서 신규 치료사 인력은 9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공간을 활용한다면 몇 명까지는 가능한데 그렇게 했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물론 저희가 조직과에 요구한 것은 30명 정도는 치료사를 확보해야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시도 인력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받지 못했고, 저희가 그래서 발달센터 관련해서 치료 연인원을 말씀드리자면 한 5만 명 정도를 현재 하고 있다면 향후 1년, 2년 지난다면 6만 명까지는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산술통계를 내봤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금 새로 지었어도 결국은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실제는 그런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이네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진료나 치료의 양은 단순히 비교해도 20% 이상 늘 것이고 또한 발달센터라는 게 제대로 된 센터가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국내에 치료모델 같은 것 또는 통합적인 치료, 치료사와 의사 간 통합적 치료 모델은 국내 최초입니다. 그러한 모델을 좀 더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의 네임 밸류가 올라간다면 전국에서 또 환자가 많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치료대기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 발달센터에서 모든 치료환자를 다 치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표준적인 치료를 저희가 제공하고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 전파시키고 또 치료사가 늘어난 부분과 치료사가 어떤 센터가 생김으로써 동기유발 같은 것이 생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양적인 면도 증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30명 확보를 원했는데 서울시에서는 9명 지원을 해 줬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런데 30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병원 공간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삼성에서 후원까지 해서 건축을 했지만 이게 오히려 공간 활용을 잘해서 대기자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9명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치료사들이 또 20여 명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30명 정도 이상 치료사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복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일단은 알았습니다.

하여튼 대기환자 부모들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치료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법이 있으면 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서울시 위탁 및 직영병원의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감사받은 모든 병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공통으로 요구한 23번에 2015년부터 금년 9월까지 임직원 및 가족을 포함한 진료비 감면내역을 보면 병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원 및 가족에 대해 감면을 크게 서울의료원과 위탁병원은 내규에 의해 감면하고 있지만 직영병원인 경우는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 감면현황에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이 가장 많은 곳이 북부병원으로 전체 1억 6,3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으로 84%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남병원은 전체 2억 7,5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으로 63%가 넘습니다. 또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은 40%가 넘게 감면했습니다.

먼저 진료비 감면액 중 직원 및 가족 감면이 가장 많은 북부병원장님, 왜 이렇게 높게 감면을 받은 이유와 또 직원 및 가족에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감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혹시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감면금액이 3년 치 같이 합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복근 위원 네, 합한 겁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저희는 임직원과 가족 감면의 근거는 서울의료원 수가규정 제10조제1항제2조 마항 또 자항에 의거해서 실제로 진료를 받게 되면 직계가족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자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복근 위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감면을 시작했는데 실제 저소득층보다 직원 가족 감면이 더 많다는 것은, 이게 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84.4%입니다.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63.7%고 또 동부병원이 48.8%고 또 보라매병원은 26.6%, 서울의료원은 40.2%입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취약한 저소득층 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민간펀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1네트워크로도 연간 1억 정도 그리고 365네트워크로도 2억 정도 저희가 감면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접수하고 외래로 보거나 입원하신 분들 감면사항은 현재 제출한 표와 같지만 저희가 다른 펀드를 통해서 감면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감면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실제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복근 위원 내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직원들을 위한 규정보다는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해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력하라는 뜻이지 당당히 그래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이게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인정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죄송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감면혜택을…….

○이복근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보다 직원 감면이 80%가 넘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규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내 가족을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첨부되어야 서울시민이 누가 봐도 아, 잘했다 얘기가 나오지.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까 당당하게 썼습니다 하는 내용 자체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위원님 말씀 새겨서 저희가 열심히 감면에 대해서 더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러시고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병원도 아까 내가 순서대로 말씀드렸지만 북부병원만 해서 내가 지적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이 느낄 때 오해가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저희들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의 경우는 가족에 대한 감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출됐는데 맞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맞습니다.

○**이복근 위원** 서북병원은 조례에 의해 전염 및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가 직원 감염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감면은 병원 감염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진료 자체를 위해서 직원이나 가족에 대한 감면제도는 없습니다.

○**이복근 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없다 이거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이복근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또 장애인치과병원은 감면내역에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감면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해 줬더라고요.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저희 병원은 장애인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하지 않습니다.

○**이복근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네.

○**이복근 위원** 여하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감면혜택을 만든 만큼 또 우리 직원들도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또 의료활동 중에 감염이 됐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당연히 또 그거는 해야죠. 그런데 수치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보다 터무니없이 80%까지 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김창원 위원** 진료는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서울시공무원의 진료의 개념에 따라 9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김창원 위원** 사전에 족을 다셨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이를테면 진료 스케줄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만 그 시간에 어떤 공적인 회의라든가 아니면 환자 관련 콘퍼런스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특이한 사항인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과에 따라서는 그런 콘퍼런스가 자주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뭔가 통일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느 과는 그것을 관행처럼 9시부터 회의를 해서 진료를 10시부터 보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김창원 위원** 어린이병원에서 가장 대기시간이 긴 과는 어느 과입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입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과 중에 한 군데도 해당이 되죠?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회의하는 동안 시민들로 하여금 그냥 기다리라는 건가요? 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과는 대개 일반적으로 당일에 오면 진료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대기시간이 가장 긴 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것은 진료를 대기하는 환자 절대수가 N수가 많다는 얘기고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급성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9시면 정확하게 진료를 개시하는데 재활의학과나 정신과 같은 경우는 급성기 환자가 아니라 재활치료를 위해서 미리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그런 진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건 아닙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왜 10시부터 합니까? 지금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도 본인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10시부터 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아주 여러 시간 동안…….

○김창원 위원 이런 행동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해이로 보이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의 횡령문제 알고 계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재발방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으로 미루실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일단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ㆍ수탁계약이 자치구와 병원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횡령이라든가 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김창원 위원 그 해당 병원을 지도감독해야 될 부서 아닌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맞습니다.

○김창원 위원 대안을 내놓으시라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그래서 현재 위ㆍ수탁계약서상에 병원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책임 부분이 좀 미약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있는 표준협약서를 이미 전체 자치구에 다 배부를 해서 그것을 준수해서 좀 더 협약내용을 강화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9개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9개 자치구…….

○김창원 위원 9개 병원 중에 2개 병원이 연루돼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래서 현재 회계전산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관계로 e호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시스템인데요 그걸 활용해서 좀 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센터장이 비상임으로 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데 현재 조금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 팀장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또 임상연구보조금이라고 아시죠? 임상연구보조금.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정확하게는 잘…….

○김창원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맞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죄송합니다.

○김창원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요.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미작성 그러다 보니까 최후 회계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으니 목적외 사용을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거기다가 과세기준도 비과세도 있고 과세도 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도 공무원법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김창원 위원 4년간 미통과된 게 0건이고요 그중에 반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분이 있나 봤더니 퇴직하신 분들이 날짜를 다 못 채우니까 반납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반납한 것도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총체적 난리 아닙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단편적으로 한 병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북병원만 이 모든 행정적 절차를 다 준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병원들은 다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관련 지침에 의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지도감독으로 될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전 병원을 감사를 하셔야 되는 사항 아

니에요?

어린이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이와 관련해서 저희…….

○김창원 위원 감사신청에 동의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여 전에 감사를 받고 감사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아마 11월 중으로 통보를 할 것으로…….

○김창원 위원 특별감사인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정기감사인데…….

○김창원 위원 정기감사잖아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정기감사 때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역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창원 위원 과장님, 수당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원 위원 연구비가 수당으로 돼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연구보조금이?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무관이나 서기관의 임상연구보조금이 수당으로 처리돼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연구라는 게 대부분 논문일 거고, 그 논문에 대해서 표절도 있고 중간 행정적으로 과정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과보고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다 이거 해지하시고 수당으로 해서 수당으로 주시지 왜…….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조금 말씀드리면…….

○김창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체…….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 시립병원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무하는 병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여서…….

○김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치밀하게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뒤에 지원하는 담당 직원들은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지원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혼선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남병원입니다. 지금 서남병원은 뒤에 있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나오는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2014년에 피폭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당했고 또는 원자력안전법 때문에 지적을 당했는데 이게 상당히 제가 걱정되는, 지금 남북관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재활과 입원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불만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서남병원장 박태환 서남병원장 박태환입니다.

저희가 한 190일 정도 재활과가 대기상태입니다. 저희가 재활과 재원기간을 지금 3개월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허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기간이 그 문제랑 겹쳐서 대기자가 한 3개월 치씩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달 한 50명 정도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병해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말로만, 지금까지 계속 불만을 안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은데 걱정 근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병원 책임자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병원장이? 그러면 앉아서 신세타령만 하고 이야기 잡담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자가 많을 때는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서남병원장 박태환 네, 시스템을 좀 고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내년에 그런 불만이 없도록 시민들의 이런 불만이 나올 때는 왜 그런지 그 해소방법 강구를 해야 돼요.

○서남병원장 박태환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장애인치과병원입니다.

지금 진료실적이 계속 감소세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실적을 늘려야 되는데 줄어드는데 이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지금 2016년 외래진료 실적은 우리가 예상한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진료의들 11명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2016년에는 출산휴가로 3개월을 냈고 병가로 6개월 휴가를 냈고 또 그 외에 다른 진료의 한 분이 출산 때문에…….

○이병해 위원 그건 말이죠 하나의 변명적인 이야기지 휴가, 출장 이런 걸로 그건 안 되는 거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건 내부적인 이야기이고 밖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래서 2017년에는 작년보다 11월 말 현재 한 4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진료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한 걸 보면 청소용역하고 주차대행서비스 계약을 한 것 보면 낙찰된 업체하고 탈락된 업체하고 청소용역은 8,000원 차이가 나고 주차대행서비스는 4,000원 차이 났어요. 이건 짜고 쳤어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렇지는 않고요.

○이병해 위원 누가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업체를…….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건 조달청에서 자동으로 아마…….

○이병해 위원 아니, 조달청이 하는데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서로 누설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5,000만 원 계약하는데 8,000원 차이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면. 그러면 업체끼리 서로 협의해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이건 제가 정확히는…….

○이병해 위원 계약하는 걸 몰랐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네,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조달청에서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병해 위원 조달청에서도 여자가 대표가 되면 좀 조정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특이사항은 있는데 그건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 보고를 받으면 이후에 재계약 때는 저희가 철저히 양 업체를 분석해서 저희에 적합한 업체를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서울시 노숙인 봉사활동 있잖아요. 그게 현재 금년도에 7회 254명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실적이 좀 저조한 거예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지금 저희가 이동진료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요 주 6회를 나가기 때문에 매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른 의료원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이 잡히면 저희는 가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이동진료버스가 주중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예약이 있는 날만 저희가 제외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른 의료원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제가 세 가지 크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서로 오해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어떤 사업을 하든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병원입니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이병해 위원 뇌병변 장애 어린이에 대해 보면 지금 외래진료가 9월 말까지 한 2만 1,000명 이렇게 진료를 했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조제건수가 거의 44만 4,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병원 위치상 교통이 불편하고 굉장히, 김창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진짜 시민들 불만이 진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린이병원

가기 싫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위치상으로는 전철이 들어가는 지역도 아니고 진짜 교통을 이용하려면 자가용을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게 처방전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도 약국에 와서 처방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료하는 것도 힘들고 약국에 가서 처방받는 것도 힘들고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 가장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 약국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저기가 없습니다.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가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이병해 위원 아니, 거기 왜 상가를 지을 수 없어요? 이번에 새로 양재에서 세곡동으로 넘어가는 상가들 많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하든지 딱 거기 병원 위치만 주장하면 안 되죠. 최 근거리에 땅 있잖아요, 새로 이번에 그쪽 아파트 짓고 상가도 많이 짓잖아요. 그것은 병원장님이 노력하고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조제를 하려면 말 그대로 4~5km 이동해서 조제하는 그런 병원에 어떻게 가느냐 말이에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그러한 부분이 저희 어린이병원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병해 위원 병원장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본 거예요? 시민들은 울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너희 울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런 개념입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희가 주변 가까운 약국을 안내해 드리고요.

○이병해 위원 우리 아는 사람들이 가서 정말 처방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료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한테 불만을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있구나. 현장에 제가 모르게 가봤어요. 가보니까 역시 거짓말하는 시민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진료시간을 줄이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 처방전에 대한 약국에 가서 약타는 그것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무한정 지금, 이게 역사가 언제입니까? 70년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어린이병원? 70년이면 노인병원 된 거예요. 65세 이상 돼서 노인이 됐잖아요. 노인 정도 되면 그만큼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추가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창원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동부병원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권미경 위원 전임의 진료성과급 지급조서 관련해서 이 기본산출의 의미가 뭐죠?

○동부병원장 김현정 지금 진료성과급은 보수규정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성과급 부분이 있고 개인성과급 부분을 합쳐서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니까 기본산출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거냐는 거죠.

○동부병원장 김현정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창원 빨리빨리 전달해 주세요.

○권미경 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셨어야죠.

○동부병원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저희 분기별로 산출하는 것은 전담하는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은 의료수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시죠, 정확하게.

○동부병원총무팀장 이수정 동부병원 총무팀장 이수정입니다.

저희는 각 진료과 의사선생님들의 2.5%를…….

○권미경 위원 기본산출이 뭐에 근거해서 한 거냐고요? 외래수입…….

○동부병원총무팀장 이수정 분기별 의사선생님들 수익의 2.5%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기본을 25%는 공통성과급으로 하고 있고 그 기본에서 75%는 개인

성과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기본수입 나온 것 960만 원에서 75%를 나누어서 총 개인성과급으로 분기별로 다 가져간다는 겁니까?

○동부병원총무팀장 이수정 기본산출의 25%를 공히 각 선생님들이 똑같이 나누어서요.

○권미경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병원장님, 지금 봤더니 분기별로 해서 진료성과 수입과 관련되어서 나누어서 기본산출을 해서 성과급을 분기별로 갖고 갔는데 최대, 분기별입니다. 분기별이면 3개월이겠죠. 의사들별로 다 다른 데 8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진료부장은 580만 원을 매 분기별로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 기본산출이나 이것은 없어요. 이건 뭐죠?

○동부병원장 김현정 운영방침에 진료부장은 따로 산출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병원총무팀장 이수정 동부병원 총무팀장 이수정입니다.

진료부장님은 진료업무가 행정업무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진료를 다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3년간 진료성과급의 평균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진료는 하지 않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진료성과를 갖고 평균급여로 주고 있다, 별도로 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부병원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전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일시적이라면 기간이 얼마큼 되는 거죠?

○동부병원장 김현정 아마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진료부장은 진료부장으로서의 판공비나 기타 다른 수입내역이 별도로 붙지 않나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판공비는 없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행정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부병원장 김현정 자동차 출퇴근비용이 있는데 그분이 자동차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해서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교통비를 안 받고 이것으로 한 겁니까?

○동부병원장 김현정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 부분은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분기별로 600만 원 가까운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동부병원장 김현정 그런데 그분은 내과전문의셨는데 그 이상의 충분히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었고 진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진료부장하면서 아무래도 원래대로 한다면 거의 톱에 해당하는 진료실적을 가지신 분인데 그 시기에 진료부장을 같이 하면서 그것보다는 진료양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몫은 충분히 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갖고 하시지 왜 이렇게 정액으로 하셨어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그 당시에 본인이 진료부장을 맡게 되면서 얻게 되는 부담감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의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료부장이 지금은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뀐 거죠?

○동부병원장 김현정 지금은 다른 과장님들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진료부장이 바뀌었나요? 2016년도…….

○동부병원장 김현정 네, 바뀌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의 진료부장은 똑같이 진료 본 수익에 비례해서 진료성과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동부병원장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 위원 제가 2017년도 진료성과급 지급조서를 보니까 똑같은 가정의학과예요. 그런데 1등하고 26등이 확연하게, 1등은 800만 원이고 똑같은 가정의학과인데 한 분은 56만 원을 받아요. 이것은 입사가 늦어서 그런 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장님은 어떻

게 생각하세요? 급여로…….

○동부병원장 김현정 차별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여자분이신데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한 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저희가 의료진을 뽑았는데 그분은 입원환자는 안 보고 외래 쪽만 커버하고 계셔서 여기 나온 진료양은 그대로 반영이 된 액수입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현재 각 외래실적 관련해서 외과, 내과 줄서서 각종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병원에서 환자의 숫자, 진료의 수익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게 병원장님은 맞다고 보시나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이것은 거대담론인데 지금 저희 병원은 보수규정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서울의료원하고도…….

○권미경 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할 겁니다.

○동부병원장 김현정 비슷한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이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업무환경이나 급여 같은 게 열악한 것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의사들 월급도 열악한가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공공의료에 투신하기 위한 소신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진료성과급이라는 것이 일부 그분들의 그런 진료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줄 세우기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하면 의료를 불필요하게 촉진하는 그런 면이 없도록…….

○권미경 위원 성과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공공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지금 병원장과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이윤이 나지 않는 착한 적자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성과급 체계로 해서 의사당 분기별로 800, 900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것은 저희가 냉철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서울의료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올해 부설연구소 운영비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제가 자료가 다 안 왔는데, 지출이랑 현재 사용한 것도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예산삭감 이유가 뭐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사업이라든지 의학연구소 사업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좀 달라지고 시와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공공의료지원단도 아마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공공의료지원단도 여기에 들어가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다, 활동하는 것이 미미하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기도 하고 9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연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봤더니 논문발표가 87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47건이고 SCI 논문 게재도 57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1건으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더 해야 되고 연구중심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아마 대개 의사분들이 논문 쓸 때 보면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몰리면 마지막에 다 써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지만 말씀주신 대로 전체 수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 이 연구…….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듬다가 연말 끝나기 전에 연구자료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 30일 것으로 보면 아직 미달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미경 위원 SCI 논문 게재는 연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보낸 것도 있고 거기에서 결과가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마지막 보내지 않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권미경 위원 의료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진료, 물론 진료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질적 향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것에 대한 토대를 의료원장님이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이것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자면 서울보라매 같은 경우는 논문 게재 건수가 190건이더라고요. 서울의료원의 31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건수입니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창원 권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장님, 지금 자료 11쪽이에요. 보라매가 지금 동작구 건강안전망사업 지원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 계획이 9만 건이에요. 그런데 9월 말 실적이 2만 3,648건, 달성률은 26.3%예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강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지금 의료복지사업을 하시고 이게 예방적인 의료복지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맞습니다. 건수가 아니고요, 위원님.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보면 조금 아까 제가 사회복지실의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죠? 병원별 사회복지실의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라매병원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 달성률은 26.8%이지만 실제로 보라매병원이 이런 자료, 지금 갖고 있는 통계자료나 사회복지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자활대상자들을 또 많이 치료하시고 그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가 사회복지실을 이용한 좋은 치료의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실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공유를 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정책과장님, 시민건강국에서 병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체 25%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지금 굉장히 미비하고 전체 자료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체 자료 없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말씀하신 내용은…….

○김혜련 위원 정책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시민건강국의 정책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료실적이나 이런 통계자료 외에는 그런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매년마다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1회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병원의 운영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301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연계된 다양한 계층의 대상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그런 부분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쯤에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출범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시립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하고…….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성과 평가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회사업실의 자활대상자가 보라매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단지 그런 사례관리의 귀결점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사업실의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한지, 각각 병원의 특징이 있잖아요. 은평병원, 서북병원의 사회복지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당의사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지역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에 나오는 그런 효과,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거

든요.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보라매병원은 그런 통계자료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보라매병원 자료를 참고해서 좀 횡단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보라매병원이 한 개 잘못한 게 뭐냐면 동작구에 건강안전망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동작구 결핵이 발병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보라매병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아니면 연락받은 사안이 없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심히 유감이에요. 거버넌스나 301네트워크 사업을 활발하게 같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저는 이 부분을 보라매병원이 선제적으로, 여기 예방적 의료복지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동작구의 정책적인 틀을 만드는 것에도 먼저 앞장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게 발병이 되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동작구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대안이 나오면 보라매병원이 적극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런 네트워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0세에서 12세까지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에게 논스톱 건강상담 받으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알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지금도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개 구인가요? 12개 구가 보건소와 건강관리의사 참여 의료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0세 이하의 아이들이 결핵에 걸려서 12명이 한 사람의 성인에 의해서 그렇게 감염이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런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에게 논스톱 건강상담을 받으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과장님이 이걸 모르셨다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작구에도 이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갔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그 병원이? 혹시 알고 계시면, 누가 알고 계신가요? 동작구에 있는 이 담당하는 병원이 어디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아까…….

○김혜련 위원 중대 아닌가요? 어디죠, 병원이? 이 담당하는 병원이?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우리아이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김혜련 위원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출생부터 청소년까지, 또는 지역 내 건강관리의사가 이걸 담당한다고 하는데 정책과장님이 모르셔서 되겠습니까, 이거?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파악하셔서 정책수립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 하시는 선생님이 건강관리에 문외한이에요. 건강관리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거나 건강증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후에 정책면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북부병원에 시민위원회, 북부병원이 시민위원회라는 구성으로 지역사회 단체, 기관 대표, 지역사회 주민 이렇게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시민위원회가 각 병원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 다른 병원도 있지만 없는 병원이 더 많거든요. 그냥 시민단체 한 명 이렇게, 그냥 지역의 대표 한 명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별히 이런 시민위원회 운영을 다른 병원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를 하시면서 기대효과 중에서 가장 좋은 효과가 어떤 거였어요?

○북부병원장 조숙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저희는 새로 이번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제가 역점을…….

○김혜련 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셨어요?

○북부병원장 조숙 제가 중점을 둔 부분은 병원을 홍보하고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목소리가 높으신 분, 또 저희 병원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님, 지역의 의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실제로 저희 병원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들을 찾아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림시장 대표가 이번에 시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됐는데요 그분은 우림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의 커다란 전광판에 늘…….

○김혜련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대표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걸 하셨나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들을 모으시게 된 거예요?

○북부병원장 조숙 위원들은 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우리 보라매병원, 뭐 서북병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큰 병원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의사선생님들 면면을 보니까 다 강남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우리 동네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역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어디서 활약을 하면서 지역의 자원,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301네트워크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사회복지실이 공공병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역을 아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위원회라는 그 구성을 한번 다 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창원 네,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 아까 수익금으로 종사자 외 모든 의사부터 해서 다 충당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과하고 해서 이거 자료를 좀 받아왔어요. (자료를 주며)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원장님은 서울의료원의 수익금으로 모든 걸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정확하게 다시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박마루 위원 아까 병원을 운영해서 수익금으로 의사 외 관련 종사자 다 급여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큰 개요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게 188억이고 운영보조금으로 88억을 받는데 서울의료원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여 그것이 팩터(factor)로 작용을 해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늘려주거나 인건비로 지원하는 비용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운영보조금으로 88억을 주는데…….

○박마루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원장님 이해는 하는데 원장님에게 정확하게 제가 한번 더 물어봤어요. 제가 좀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볼 텐데 정확히 원장님께서는 종사자의 비용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수익금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보조금도 기부금수익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박마루 위원 그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의 주 수입이 장례식장 운영하는 비용 그다음에 의료수익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를 한번 봤어요. 이거 단일회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별도의 통장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손실분 88억에 대해서 계산 안 하는 팩터, 착한 적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착한 적자는 서울시가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컨설팅을 해서 관여해서 저희도

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발언 막아서 죄송스러운데 인정할 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국 서남병원을 해서 그 병원에 대해 연간 10억 들어가는 의사분들 비용 일정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랬든 저랬든? 아무리 별도로 간다할지라도. 제가 그래서 아까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랬어요. 이 88억에 대한 것 별도 통장 있으면 내역서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도 인건비가 한 해 서울의료원이 연 총 700억에서 720억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조금 더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이번에 서울의료원 제가 그 문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3.6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민간위탁적격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세 분 중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환경과사람들, 이분은 환경단체 대표세요. 그리고 한 분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세무법인 이사예요. 그런데 경영의 문제가 아닌 회계법인에는 타당한데 병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분에 대해서. 그런데 점수가 3.6점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공공의 의료로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것 내일 따질 문제거든요. 그런데 미리 확인차 하는 겁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동부병원 12월 말이면 다시 재위탁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약이 끝나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동부병원이 한 동안은 유동성 위기까지 왔다고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경영컨설팅도 하고 이랬죠? 실제로 서울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때 문제도 이렇게 불거져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동부병원이? 전혀 이상이 없나요? 경영컨설팅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때 나왔던 결과로? 경영컨설팅 보셨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의료원이 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네 개 병원을. 그리고 관리도 안 되면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실제로,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자료 안 들어왔지만 지금 서남병원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서울의료원이 지도감독했던 부분들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3개 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에서 정확히 문제점이 뭔지, 좋은 점은 뭔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의료입니까? 공공의료 확대하기 위해서 서남병원까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잘된다는 보장이,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간다는 차원입니다. 처음부터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힘들다, 우리 서울시가 아무리 이것 한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탁하고 있는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적격심사분들이 이 계획서만 딱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서울의료원이 위탁하고 있는 병원들에 대한 평가 사실 봤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안 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점수도 3.6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저도 어느 때는 그래요. 민원이 들어와서 정말 무리한 것은 저 NO 합니다, 근거 대드리고 도저히 못 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있고 시민의 고충 또 시민이 행복한 방법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또 하나 다사랑회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사랑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사랑회는 저희하고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 병원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는 병원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의를 하거나 어디 참여한 적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다사랑회 관련된 후원금이 들어오면 병원 진료나 이런 데 어려운 분들 사회사업 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것은 없나요, 처리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일부 직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병원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다사랑회에서 주는 거예요, 병원에 도움을 받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사랑회에서 주는 겁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다사랑회는 실제로 어떤 법인이에요? 여기 이사진들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2013년에 만들었고요.

○박마루 위원 몇 년도까지 병원에 있었죠, 설립되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후에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여기가 독립법인이에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독립법인입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의료원 관계자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퇴직해서 아니면 그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에 계신 분도 일부 있고요 주로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다른 병원에 가계신 분들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분도 네 분 정도 더 계시고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담당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마루 위원 얘기 들으셨죠, 뒤에서? 그러면 12월에 동부병원 위탁을 할 때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일단 지금 한 개 기관만 신청했기 때문에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충족이 되면 선정이 됩니다.

○박마루 위원 한 개 기관이면 서울의료원이에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박마루 위원 그게 언제 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10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유찰이 될 경우 보통 민간위탁 정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절차는 바로 하나 왔기 때문에 그 한 곳만 가지고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겁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7월에 모집 공고했고요. 그래서 한 개의 기관이 접수되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재공고했고 신청접수해서 서울의료원 한 개 기관이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적격심사뿐만 아니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의료원이 동부병원을 위탁했을 때 그 기간 내에 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안 하면 저도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과연 서울의료원이 진짜 맞는 의료기관인지 확실히 봐야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심사기준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한 개가 오더라도 부적격이면 다시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다시 또 서남병원처럼 한다고 그러면 저 지역 없어요, 선거도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말 끝까지 제가 이것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남병원 이렇게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또 동부병원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 용납 못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심사기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들어가시죠.

○부위원장 김창원 마치신 건가요?

○박마루 위원 자료가,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창원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 301네트워크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맨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병원으로 다 퍼졌고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런 것처럼 301네트워크도 어찌 보면 북부병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모델이 다른 병원으로 같이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해 보시면서 아쉬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생각하신 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쉽다 그러면 전파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오승록 위원 전파 속도라는 게 병원 내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까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다른 병원 전체 또는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301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종류의 사업들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어떤 사업이 있죠, 어떤 이름으로?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같은 내용입니다. 네이밍이 301이 아니지만 보건복지의료통합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것도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지만…….

○오승록 위원 인건비나 아니면 사업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인건비, 전담요원 이런 쪽의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승록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저희도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크게 펀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지 않고 각 병원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아서…….

○오승록 위원 펀드도 그런 것 같아요. 병원별로 편차가 좀 있는 거죠. 펀딩을 잘하는 데가 있고 굉장히 버거워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의미는 굉장히 큰 게 기존에 병원들이 그냥 환자들이 오면 치료만 하는 개념에서 찾동과 비슷한 개념으로 환자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또 복지하고 연결시키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오승록 위원 직접 병원까지 모셔오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입원까지 해 주고 같이 동행해 주는, 아까 북부병원장…….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이 꼭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것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의 자체역량 개인기에 너무 맡겨 놓은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북부병원은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위로 인건비라든가 저것을 지원하게 됐는지 모르겠……. 파악됐습니까? 그것 좀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다 하시겠지만 보라매병원장님 혹시 301네트워크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해 보시면서 역사는 짧습니다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서울의료원장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병원에서는 발굴이 상당히 어렵고요, 환자 발굴이.

○부위원장 김창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건가요?

○오승록 위원 결국 발굴은 이미 시스템상 찾동이나 복지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은 별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전담인력과 예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병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찾동이 시작된 후로는 발굴이 많이 되고 의뢰건수가 굉장히 늘었고요. 병원에서는 오히려 펀드 자체는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보라매병원은 펀드를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병원은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성에 대해서는 병원장님들이 다…….

장애인치과병원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301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문제가 펀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사회사업가 한 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의료원이나 직영병원이나 위탁병원보다 좀 나은 게 저희는 이동진료버스가 주 6일 나가서 1년 내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의사들이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장애인시설 이런 쪽으로 가면 해당 유인물을 다 배포를 하거든요.

○오승록 위원 거기는 진작부터 찾동사업을 해 오신 거죠.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2016년 작년부터 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찾아다닌 거죠.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배포를 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그런 쪽에서 의뢰를 해 주면 저희가 펀드를…….

○오승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무료로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실비로 무료로 하면서 드는 비용?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래서 치료 의뢰가 오면 저희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료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스마일재단에서 전신마취비 이런 치료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치과병원이나 어린이병원은 어찌 보면 접근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나 동부, 북부는 그 인근에 구를 묶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치과는 인근 구만 하기에는 특성화된 진료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서울시 전역을…….

○오승록 위원 서울시 전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렇죠? 다른 서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도 자기 권역이 있단 말이죠, 주변에. 그런데 그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들이 사각지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북부병원장님 한번, 어떻게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됐는지.

○북부병원장 조숙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에서 좀 조사를 해서 니즈(needs)가 있었고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북부병원에 있던 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겸직으로 시작을 했고 간호사는 간호팀에서 파견을 해 줬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3명이 있었는데요, 북부병원 특성상 환자분들의 상담을 많이 해야 돼서 사회복지사가 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겸직으로 같이 처음에 민간펀드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 1년 하면서 성공적이어서 2014년도에는 정규직으로 TO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승록 위원 서울시에서요?

○북부병원장 조숙 네, 처음…….

○오승록 위원 2014년부터 지원을 했다?

○북부병원장 조숙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북부병원장 조숙 2013년부터 했었는데…….

○오승록 위원 ’13년, 1년 만에 성과가 좀 있으니까 그때부터 서울시가, 서울시 자체 판단이었겠죠?

○북부병원장 조숙 네.

○오승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오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오승록 위원 이 301네트워크사업 제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 위원 우리 의료과의 중요, 물론 병원 전체적인 걸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업무겠습니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충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한계고 중요성은 다 인식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계속 못내 아쉬운 것은 전담인력과 예산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전담인력을 북부병원은 5명 지원해 주고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은 1명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알아서 겸임을 하든가 공공의료지원단이나 사회복지실이나 사회사업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이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조직이 있어서, 북부병원의 장점은 전담조직이 있기 때문에 늘 대기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필요하면 이송까지 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펀드 문제도 저는 이걸 병원에 맡기지 말고, 이건 보니까 1년에 1억인데 9개의 병원이면 9억 아닙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오승록 위원 재정으로 못 하는 거예요? 재정으로 펀드 비슷하게 지원을 못 해 주는 건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일단 저희가 시비로 금년에는 12억 정도, 내년에는 1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12억이요? 어떤 거에 대한 12억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301네트워크 전체 9개 병원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에는 12억 편성했는데…….

○오승록 위원 12억을 해 줬어요? 어떤 명목으로 해 줬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해서 지금 북부병원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오승록 위원 그건 인건비 준 거고요. 인건비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인건비와 일부…….

○오승록 위원 인건비하고 약간의 사업비 줬겠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일부 운영비가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북부병원은 3억 정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그거 이상 없지요? 조숙 원장님? 또?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다른 병원에도 그 병원 실정에 맞게…….

○오승록 위원 그러면 12억 중에 3억이 북부병원이면 나머지 9억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나머지는 은평병원이 좀 많습니다.

○오승록 위원 얼마 해 줬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3억 9,600을 해 줬고요.

○오승록 위원 3억 9,000이요? 병원장님, 그걸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받으셨어요? 301? 어떤 걸로 지원해 준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내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료간병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억 5,900 정도가 있고…….

○오승록 위원 무료간병인 지원. 그건 펀드로 했어야 될 일들인데?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그리고 서북병원에도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2억 8,400 정도 지원했고요, 나머지 6개 병원에 대해서는 거의 1인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런 셈이니까 서북과 은평 직영병원들만 지원이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북부병원은 직영이 아니어도 워낙에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은평이나 서북도 제가 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펀드에서 했어야 될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연계를 통해서 재단에서 내년도에는 펀드 조성…….

○오승록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북부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금이 너무 크대요. 15억인가? 얼마 12억이요? 조숙 병원장님, 12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북부병원의 저 모델을 다른 병원으로 확산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걸 재정으로 전담조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고 병원마다 5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예산도 펀드에 너무 의존하게 하지 말고 병원마다 다 그것 때문에 버거워하고 돈 알아서 구해서 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건 너무 사업에 대해 동력이 붙을 수가 없죠. 예산 지원해 주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병원별로……. 지금 은평이나 서북은 기왕에 지원해 왔고 북부까지 빼면 나머지 6개 병원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1년에 1억씩만 해 줘도 9억에 각 병원별로 인건비 3억 정도 한다고 그래도 한 30억 내외면 충분하지 않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승록 위원 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고요. 박원순 시장이 찾동한다고 공무원 1,800명 뽑았잖아요. 그래서 동에 싹 다 배치했잖아요. 그걸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종사자 한 명 TO 따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 명 지원받기도 그렇게 버거운데 공무원을 무려 1,800명 뽑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에 우선

순위를 뒤서 집중투자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도 이제는 그 정도의 단계에 온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왜, 찾동사업이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찾동을 통해서 발굴된, 치료가 필요한, 긴급의료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시립병원이 아니면 누가 이걸 케어를 하겠습니까? 민간병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병원을 하게 하려면 거기도 전담조직 주고 예산 줘야 될 텐데 그거 안 되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으로 301네트워크가 기왕에 시작이 됐고 이제 성과를 내려면 북부병원 모델처럼 다른 병원들도, 예산까지도 이제는 조금 재정으로 해결해 주면서 독려하고 성과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렸었어요, 예산과에?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지금 현재 아직 가안이지만 작년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건 한 게 아니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아니, 금년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승록 위원 그건 아까 서북하고 몇 군데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안했던 대안, 301네트워크를 전 병원에 공세적인 사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전담조직, 예산 이거 앞으로 예산 때까지 2~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검토하셔서 예산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양숙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2차 질의는 위원님들 다 돌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병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 우선 먼저 병원장님들, 병원 경영하랴 진료하랴 여러 가지 역할 수행이 많이 힘들 겁니다.

서울의료원장님, 경영자의 입장에서 원장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료도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경영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진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해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동부병원장님, 나오세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동부병원장 김현정입니다.

○이병해 위원 유일하게 동부병원장님은 2016년 3월부터 진료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정형외과는 진료할 필요가 없습니까?

○동부병원장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진료도 임상도 중요하지만 병원장의 책무를 맡았다면 병원 전체에 기여…….

○이병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원장님은 수요일에 진료를 하고, 보라매병원장님은 주 3일 진료를 하고, 북부병원, 서남병원 주 2회, 은평병원 주 2회, 어린이병원 주 1회, 장애인치과병원은 주 3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병원은 경영적인 책임 때문에 진료를 하면 안 되겠네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6년 초반에 동부병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이직률이 25%까지 치솟고 간호ㆍ간병을 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유동성 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한 번 더 진료를 보는 것보다는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는 당시 시 쪽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병해 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성과가 났습니까?

○동부병원장 김현정 아까 서울의료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정상궤도를 지금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러면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동부병원보다 규모가 병상수가 한 3배 정도 큰데 그러면 거기는 경영하다가 병원이 망하겠네요, 잘못하다가?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대학병원이든지

어느 병원을 가도 병원장님이 진료를 하나도 안 하고 손 떼고 경영만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동부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경영을 해서 지금 효과를 기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어떻게 누가 보면 책임회피 같고, 아니 의사가 진료를 안 하는 것은 그러면 의사가 와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경영자가 와서 경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답변하세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병해 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경영 잘하는 분이 와서 경영을 하고 그래서 경영이 어느 정도 완수가 되면 병원 진료를 하는 분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동부병원장 김현정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한번 논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그건 생각을,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들어가시고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병해 위원 과장님,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근무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기본적으로 진료와 경영을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병해 위원 물론 숨기고 그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담당 책임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도 병원에 어떤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과장님도 있고 팀장도 있고 주무관도 있고 다 있는데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건 이건 완전히 책임 회피하는 거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다시 파악해서…….

○이병해 위원 오늘 제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열불 나서 정말 참지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병원장님들도 진료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영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괜히 북부병원 때문에 다른 분들도 살벌하잖아요, 지금.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해 위원 전체 해당 병원은 다 파악해서, 지금 보니까 서울의료원은 원장님이 276건을 외래입원 진료를 했고 보라매병원은 2,911건을 진료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여기 서울의료원에 보면 북부병원 원장님은 서울의료원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지금 기강이 해이해서 관리 책임, 과장이 뭐하는 게 과장이에요? 직책 수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이병해 위원 정말 성질 같으면 조인트를 까서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기강을 살려야 되는데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2016년, 2017년 원장님들 진료 건수 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도 수습기간이 좀 있죠? 신규발령이 났을 때 수습기간이 있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교육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미경 위원 교육기간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수습기간입니다.

○권미경 위원 수습기간과 교육기간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발령 나기 전에 교육기간이 따로 있나요, 서울의료원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아니요, 먼저 하지 않습니

다.

○권미경 위원 발령이 나고 나서 교육기간이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권미경 위원 그때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권미경 위원 어린이병원이랑 은평병원, 서북병원은 직영병원이니까 다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나요?

수습기간 자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없습니다.

○권미경 위원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은평병원장님도 서북병원장님도 동일한가요?

보라매병원장님?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수습기간과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발령 전 4주, 발령 후 4주로 단협에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발령 후 4주는 발령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교육기간으로 보십니까, 수습기간으로 보십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사실상 급여를 정확히 다 주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은…….

○권미경 위원 급여를 다 주고 있습니까?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발령 후는 주고 있습니다. 발령 전은 작년까지는 1일당 1만 5,000원으로 단협에 되어 있어서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급을 소급해서 다 완료하였습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이게 서울대병원이랑 똑같은 사례인 거죠? 언론에 보도됐던 국감에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저희가 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지급을…….

○권미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도 동일하게 갔다. 그래서 지금 이 임금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죠? 시급이 1일 1만 5,000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한테는 조치를 하셨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권미경 위원 몇 년 치를 지급…….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2014년 6월 이후부터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권미경 위원 소급 지급했나요? 그 관련해서 3년 치를 소급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본원에서 결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게 갈 수는 없었는데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권미경 위원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 분원이죠. 그렇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판단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마이크를 정확히 대고 말씀하시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이 부분은 보라매병원에서 별도로 따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라매병원 직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직원이고 인사권은 본원 원장에게 있고 노사협상…….

○권미경 위원 얼마 전에 전적자 문제로 계속 논의가 되면서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보라매병원이 갖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채용과 관련해서?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채용만 지금 현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인사권은 아직까지 이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권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서울대병원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미경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의료정책과는 인식을 하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권미경 위원 보라매병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지금 수습기간에 급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인지…….

○권미경 위원 인지하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권미경 위원 언제 인지하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권미경 위원 인지했으면 이것 조치가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거의 그 시점에 인지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언론보고 아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지도점검을 언제 나갔고 언제 인지를 하셨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지급하는 그 시점에 인지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지급하는 시점이 언제인데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10월 26일 그때 지급했다고 인지했습니다. 언론보도 보고 알고 10월 26일에 지급했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언론보고 안 거잖아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권미경 위원 지금 서울시가 위탁하는 병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 분원이지 서울시 병원 아니죠? 그렇게 보시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서울시 병원입니다.

○권미경 위원 역할을 뭘로 하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시립병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까지…….

○권미경 위원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말로만 얘기하는 게 철저히 되고 있나요? 서울대병원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

○권미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답변도 제가 볼 때는 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닙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라매병원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40병상에서 최근에 80병상으로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맞습니다. 84병상까지 늘어났습니다.

○권미경 위원 관련해서 혹시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보신 게 있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가장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은 간호사 비율을 1 대 10으로 하는 게 종합병원 표준이기는 한데 저희는 중증도 감안해서 상향해서 1 대 8까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상당히 거대하다고 합니다. 또 간호에 간병이 추가되다 보니까 간병이라는 것은 원래 간호사가 하던 일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권미경 위원 그래서 물적 지원을 하고 계신 게 뭐가 있죠? 인력을 기준보다 오버되어서 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이것은 모델로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력부분은 저희가 다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요. 애로사항을 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자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권미경 위원 병원장님 애로사항 잘 안 듣고 계시죠?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입니다.

○권미경 위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진행하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콜 모니터가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병실마다 달아서 효율성을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초기부터 시행을 했고요 병실이 아니고 병상에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병상에 있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개인 콜벨입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디

서 확인하는 거죠? 개인병상에 있으면 환자가 병상…….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것을 누르면 중앙으로 연락이 됩니다.

○**권미경 위원** 중앙으로 연락되는 시스템입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것도 있고…….

○**권미경 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병실 앞에 있지 않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여러 개 하는데 병실 앞에도 있고 콜벨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다 시행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환자 곁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인력이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이 병상 저 병상을 왔다 갔다하는데 보호자가 없다 보니 환자들은 벨을 통해서 호출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호출을 했으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스테이션으로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병실을 찾아서 들어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동선이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병동에 적어도 환자가 침상에서 벨을 누르면 몇 호 몇 번째에서 눌렀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서울의료원은 안 하고 있나요?

○**서남병원간호부장 이인덕**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하고 있어요.

○**권미경 위원** 나와서 답변해 보시죠.

○**서남병원간호부장 이인덕** 간호부장이고요, 현재 서남병원에서 파견근무하고 있고요. 간호사들이 일일이 중앙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권미경 위원** 간호부장 누구인지 성함을 정확히……

○**서남병원간호부장 이인덕** 이인덕입니다.

복도 중간 중간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몇 호실의 몇 번 베드에서 콜이 울리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테이션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바로 동선이 굉장히 짧아지게…….

○**서남병원간호부장 이인덕** 네, 짧아졌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서울의료원이 주로 서울시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는 병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시설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서남병원간호부장 이인덕** 네.

○**권미경 위원** 대부분의 병원에서 다 하고 있나요?

○**서남병원간호부장 이인덕** 그래서 저희가 선도병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요 현장을 다 보고 가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있고 아마 예산이 안 돼서 도입하지 못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하고 있나요?

들어가시고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은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보라매병원은 도입되어 있어요? 서북병원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서북병원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의 문제입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북부병원은 어떻죠?

○**북부병원장 조숙**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어느 정도 높이 이상으로 일어나시거나 움직이시면 일단 센터에서도 또 서브스테이션에서도 몇 호의 누가 그러시는지 알 수 있고 또 지금 간호사들에게 워치를 줘서 워치로 몇 호 누구 낙상가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낙상 침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아니요, 침대 위에 모니터만 설치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센서입니다.

○**권미경 위원** 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호출이 오는 기능 아닙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아니요, 조금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움직이면 간호사가 서브스테이션과

중앙스테이션에 모니터가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몇 호 1 2 3 4호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쫙 그 화면이 열리면서 이게 그냥 간호사가 가서 움직이는 건지 환자가 일어나시는 건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런데 북부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100% 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나요?

○북부병원장 조숙 40병상인데 100%는 안 되고 33병상 정도 되고 있고요, 여전히 낙상의 위험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33병상 정도 환자들이 늘 있나요?

○북부병원장 조숙 네, 그 정도 있고 많이 있을 때는 37명까지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도 지금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나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저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를 요청할게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서울의료원이 중심이 되어서 선도병원으로서 각종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교육팀이 있는데 한 명 정도만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요청을 받은 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오픈할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어요.

그 부분과 그리고 지금처럼 낙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환자 호출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적어도 직영이나 위탁병원들 한테 이 시스템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표준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교육과 표준안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시스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북부병원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해 보셔서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TF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현장 확인해서 좋은 점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식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석식을 위하여 오후 8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9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동부병원이요. 보통은 병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발생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동부병원이 완화도우미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 23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동부병원이 채용한 것은 아니죠? 사회적기업인 다솜이하고 계약 체결한 거죠?

○동부병원장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결국에는 이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 맞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저희가 말씀이 나온 김에 조금 드리면 완화도우미 23명을 다솜이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 부분이 호스피스 일자리가 창출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알코올해독센터에서 노숙인이셨던 분들 열 분하고 두 분 따로 해서 열두 분 일자리를 창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 보면 계속사업을 실행할 때 이분들이 처음에 취업되시고 계속사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보고는 받으셨나요? 평가가 있었나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다솜이 통한 완화도우미는 7월 1일자로 시작해서 시작한 지 7, 8, 9, 10…….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됐어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스물세 분 다 있고요, 그리고 어떤 퍼센티지를 물으시는지…….

○김혜련 위원 완화도우미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아직까지 초기이기는 하지만 환자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게요…….

○김혜련 위원 일하시는 분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이번 11월에는 그분들 중에 두 분을 호스피스 행사가 열리는데 보내드렸거든요, 교육차원에서. 그랬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호스피스가 전담을 해서 또 전문적인 교육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색달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궁금해서 또 하나 묻고요.

또 하나는 정책과장님 들으셨죠, 이런 얘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요즈음에 일자리가 화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했을 때 전문인력을 간호사분들을 중국동포나 조선족이 많이 채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사례로 다른 병원에도 이런 것을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01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추진배경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해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 사회경제적 문제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어떤 자료가 있었느냐 하면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다른 병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안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내주셨어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저희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표본적으로 몇 케이스를 담았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케이스별로, 제가 케이스를 보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자료를 허술하게 그냥 네트워크 연결, 그렇게 내주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내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네트워크 의뢰환자경로, 사례 이렇게 해서 대상자에 대한 사례발굴에 대한 의뢰부터 시작해서 사례협의 및 의뢰접수, 문제사정,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의 자원, 사회에 돌아갔을 때 자원을 어떻게 연계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적으로 개입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이렇게 301네트워크가 많이 여러 갈래로 시행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되고 또 이런 분들이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기술해 주셔서 굉장히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재의뢰가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에서 잘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중에 정책을 세울 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동부병원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본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이 협력해서 복지자원을 상시로 발굴하고 이렇게 구축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 안에 저는 우리 301네트워크도 하시고 지역이랑 연계한 네트워크가 이 안에 병원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단위 사회보장공공정책에 대한 참여이기도 하고요 동단위 사회보장정책실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민간협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어떻게 지역과 연계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활성화 계획에도 과장님이 정책을 같이 할 때 우리 병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복지부의 사업을 살펴보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 탈북청소년 성인지 향상 프로그램 하셨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여명학교라고 하는 청소년 학교에 가서 저희가 성인지 교육을 합니다.

○**김혜련 위원** 아, 학교에 가서?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몇 명 정도가 이걸 하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두 개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혜련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프로그램 내용은 전체적인 청소년 시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김혜련 위원** 여명학교가 은평구에 있는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아닙니다.

○**김혜련 위원** 어디에 있죠?

○**은평병원장 남민** 중구 쪽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 중구 쪽에. 여기는 특별히 의뢰가 와서 가게 됐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화해서 병원이 가져갈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요.

○**은평병원장 남민** 지난 5년 정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탈북청소년 이 아이들의 부모가 중국으로 갔을 때 대개 부모들이 인신매매를 통해서 중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이런 체계 안에 들어와서 성인지 향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련된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 거기 많이 살고 있잖아요, 양천구에.

○**서남병원장 박태환** 서남병원장 박태환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건강안전망 구축을 하는 게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죠? 알고 계신가요?

○**서남병원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됐나요?

○**서남병원장 박태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하나센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죽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공지원단을 통해서 진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김혜련 위원** 특별히 사례관리를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나요? 사회복지실이 하나요, 아니면 공공의료실이 하나요?

○**서남병원장 박태환** 사회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한 명 거기도…….

○**서남병원장 박태환** 전담은 아니고요.

○**김혜련 위원** 그냥 프로그램 한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분을 상담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나요?

○**서남병원장 박태환**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한 다음에 건강진단이랑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가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족단위로 연락은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새로 오셨잖아요. 또 병원이 새롭게 뭔가 가치를 만들 때 저는 그곳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에게 서남병원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병원에 가면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건강권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을 보장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특화프로그램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서남병원장 박태환**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기술하셔서 같이 서울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논의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남병원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47%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은 왜 이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박양숙 잠깐,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입니다.

그 사업에 지원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보통 그 사업은 저소득 장애아동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이하, 20세 이하인데 대부분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가족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대부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건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동진료나 아니면 MOU를 맺은 보건소 이런 데를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분들을 지금 수합을 받고 있어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뭔가 잘 안 맞으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아요? 전환할 계획이 있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네, 그럼요.

○김혜련 위원 어떤 계획인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원래 그게 저소득층 가장만사라고 해서 저소득 가장을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일부를 우리가 분할해서 그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소득 청소년 치료비 지원사업이 그 조건에 맞으면 그것으로 지원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돌려서…….

○김혜련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함께 저희하고도 공유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위원님 고견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새로운 조례도 만들고 헬스키퍼라는 사업을 만들었잖아요. 올해 어땠어요, 만족도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좋아하고 특히 3교대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혜련 위원 특별하게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기대효과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다른 병원으로도 우리들이 확장시키려고 그랬고 그거는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직업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도 돼서 간호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좋고 또 병원에 되게 도움되는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게, 만족도는 좋은 상태였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정책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김혜련 위원 올해 헬스키퍼 그 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 창출의 한 일환이기도 하고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 간호사분들을 이렇게 안마를 통하거나 아니면, 통합간병서비스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합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병원에 두고 거기 출근하셔서 그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걸 높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서 이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못 올리셨나요? 놓치셨어요 아니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으로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예산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1년 단년도 사업으로 일단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더 중요한…….

○김혜련 위원 그건 아니죠. 일자리를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가장 특화되고 적화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또 다른 병원에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늘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혹시 보라매병원 하실 얘기 없으세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특별히 할 얘기가…….

○김혜련 위원 특별히 없으세요?

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마루 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다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행감에서 좋은 일만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것도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안 좋은 거를 먼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북병원 같은 경우 지금 강의 나가시는 의사분들 그다음에 지방의무사무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지금 많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김영란법 이후로 두 시간 기준으로 하면 45만 원이에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데 여기 기관들, 병원들은 다 지금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분들이세요. 아시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박마루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강의를 가끔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여기 우리 서북병원에 보면 진료부장님이 최근까지 보니까 한 29건을 갔고요. 그중에 여기 보면 9월 21일, 여기 45만 원 한 시간 반 기준인데 보니까 이거 저촉은 아니에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가, 강의가 2016년 9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진료부장님이, 아니네, 맞네요. 2017년에 갔다 오셨네. 2017년 9월 21일이네요. 저는 착각했네요, 2016년으로.

그런데 한 시간 반 강의했는데 45만 원의 강의비를 받았어요. 보통 기준이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이거든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아, 한 시간에 30만 원이고 두 시간까지 45만 원 그렇게…….

○박마루 위원 근데 한 시간 반을 강의하신 것으로 체크가 되어있어요, 강의시간이.

○서북병원장 박찬병 30분 단위가 1시간 단위로 그렇게 환산돼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박마루 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박마루 위원 뭐 이렇든 저렇든 공히 다 대부분의 병원 우리 의사님들이 또 관계 사무관들이 상당히 많이 강의를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의 많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진료에 지장은 없는지. 뭐 말씀하시겠죠, 그런 선에선 다 대안을 가지고 강의를 갔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의료성과급도 받죠, 진료성과급?

○서북병원장 박찬병 시립병원은 성과급이라고 하기에는 뭐 성과평가는 하지만 성과급 지급은 거의 뭐, 아주 미미합니다.

○박마루 위원 미미하다고 그래도 받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공무원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박마루 위원 자, 그러면 원장님.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박마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병원의 진료나 병원의 운영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나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제가 지금까지 의사들의 모든 출장결재를 직접 하면서, 금년부터 제가 직접 합니다.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진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미 양해가 되어있었고 이분들이 외부에 출장 나감으로써 생기는 진료의, 주로 입원환자의 진료입니다. 외래환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일정을 맞춰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갔다 와서라도 저녁에나 새벽에 그렇게 회진을 돌고 처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진료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마루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꼼꼼히 보고요. 2018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체크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사무관부터 원장님도 그러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부강의를 가요. 총 수로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해서 총 95건의 외부강의를 갔어요.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공익적인 강의인지 제가 보겠다는 겁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박마루 위원 저기 우리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본 위원도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수화통역사,

농아인 분을 채용해가지고 저는 뭐 좋다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그분이, 한 분이?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그분이 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채용 중입니다. 공개채용 중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그분이 몇 개월 정도 근무하신 거예요, 수화통역사?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인, 개인의 사유예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런 겁니다. 이분이 총무과로 소속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다른 데 있다가? 아, 총무과로 있다가 의료사회사업 형태로 바꾸었죠? 바꿨나요, 안 바꿨나요? 그것만 정확히 해 주세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바꾸려다 보니까요, 소속…….

(「사회복지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하는 관계직원 있음)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아니야.

로비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요 본인도 원하고 해서 장소를 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과 쪽에 장소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런 장소 문제는 적응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이 아마 정상인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당사자하고 직접 얘기를 안 했지만 추천한 분의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배려차원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화로 할 때는 그 의학용어들이 새로운 수화예요.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과가 아닌 의료사회팀 공공 파트에 좀 그분을 근무하게 해 달라, 이게 의료용어가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통 수화 그러면 다 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용어 다 다시 수화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말 안타까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지금 고용부담금을 봐도 2016년도 2억 9,800만 원이에요, 고용부담금이. 그럼 2017년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지금 현재는 의무고용률 3.2% 해서 57명이 필요한데요 고용이 현재 상태로는 57명이 다 돼있습니다. 올해 많이 채용해서 그런데 아마 이게 채용을 지금 해도 그 부담금이 나오는 건 이월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발생은 할 것 같습니다, 좀 소규모로. 후년에는 발생을 전혀 안 할 것 같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금 57명이라고 그랬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박마루 위원 57명의 충원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올해?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박마루 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시간제 최저임금 이상이에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대개 가장 많은 것이 100시간 고용이고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박마루 위원 아니, 그거야 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에 시간제로 했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고용 현황을 보면.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저희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100%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가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아니, 가고 있는데 원장님, 2016년도도 이렇게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57명이 근무하는 부서 그다음에 급여, 장애유형 그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보라매병원도 의사 분들이 강의를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 간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강사료는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출장료는 별도로 또 병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나

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출장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20만 원 내에서 그분이 자부담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개인보호법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름들이 다 비어있어서, 원장님 이거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한 분이 얼마 정도 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그렇게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이거를 볼 수가 없어서요 이것도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현황하고 그리고 의사 분들 강의 나갔던 부분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집행부석을 보며) 자료 가져왔나요?

전달이 필요한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지금 공히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북병원 얘기했고 그다음 북부병원. 북부병원도 보니까 상당히 강의가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도 상당히 많습니다.

○북부병원장 조숙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아까 우리 서북병원 얘기했을 때처럼 환자의 진료에 대한 부분, 또 원장님으로서의 역할, 전체 의료의 어떤 차질이 없는지 그런 고민해서 갔다 오셨겠죠?

○북부병원장 조숙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 위원 사전 허가는 원장님은 어떻게 받아요? 보통 우리가 강의 나갈 때 서면으로 허가를 받거든요. 원장님은 최고결정자잖아요.

○북부병원장 조숙 제 강의 말씀이십니까?

○박마루 위원 네.

○북부병원장 조숙 제 강의는 거의 다 지역사회에서 보건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진료라든지 다른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사전 허가는 누가 해요, 이거는? 아니, 김영란법이 되면서 까다로운 게 우리 의원님들도 어디 강의가면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도 해야 되고 몇 시간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내용을 다 해야 돼요.

원장님은 본인 스스로가 사인하시나요? 아니면 북부병원 위탁이 서울의료원이니까 그것은 안 하시나요?

들어가시죠, 원장님.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박양숙 다시 정리해서 하시겠습니까?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 은평병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병원 최근 3년간 환자들로부터 폭언, 폭행 내역을 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 위원 아무래도 정신과병원의 특성상 제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을 가해서 가슴통증이 매우 심했고 찰과상이나 이런 것들은 유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대책을 봤더니 응급상황 대처법과 호신술이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대처법입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전체적으로는 크게 구조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접근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들을 익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통계를 잡아봤더니 폭력행동이 입원 후 일주일 이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야하고 또 차후에 저희가 시와 계속 논의 중입니다만 병원환경 개선을 할 때 초급성기 환자분들의 행동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병동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 위원 필요하죠. 지금 이게 개인이 호신술을 배워서 이 환자들을 적극 대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병원 차원에서 응급기라고 해야 되

나요 급성기에 있는 환자들을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내년 예산에도 일부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병동에서 남자직원을 보호사라고 하나요. 보호사 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휴직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정원 중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현재 전체 저희가 필요한 인원 54명을 요청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예전 기능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분들이 자연퇴직을 하면 그 부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채워지지 않다가 최근에 조직과와 인사과의 협조를 얻어서 임기제 간호조무사의 형태로 선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채워진 건가요? 그분들이 인원현황에 보면 어느 부서에, 관리운영직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은평병원장 남민 간호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간호부 소속인가요, 간호직으로 들어가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채워지고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4명을 더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직은 어떤 직에 해당하는 거죠? 6명이나 부족한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직이죠?

○은평병원장 남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직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그분들이 임기제로 전환돼서 충원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직은 일몰제 비슷하게 시행하는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권미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간호조무사 임기제로 다 전환하는 거고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그분들이 퇴직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은평병원장 남민 네, 퇴직하는 대로 인원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은평병원 관련해서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고 나서 각종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원무과 행정직원의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충원이 됐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래서 7급 행정직원 한 명이 배정되어서 지금 현재 선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시간 시간제 직원이 35시간으로 변경되어서 한 명을 선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정규직이 아니라…….

○은평병원장 남민 시간제 35시간.

○권미경 위원 시간선택제입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시간선택제 맞습니다. 시간제 임기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미경 위원 시간제 임기제.

○은평병원장 남민 2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

○권미경 위원 15시간에서 35시간.

○은평병원장 남민 20시간에서 35시간.

○권미경 위원 20시간에서 35시간인가요? 시간선택제?

○은평병원장 남민 시간제 임기제입니다.

○권미경 위원 시간제 임기제인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있는 건가 요?

○은평병원장 남민 마찬가지로 5년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5년까지?

○은평병원장 남민 임기제는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하고 그 5년이 지나면 다시 선발과정…….

○권미경 위원 매년 계약이 아니라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처음 2년을 선발하고 그 이후에 2년 또는 3년에 임기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정신보건법 관련해서 행정업무는 줄어들 업무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런데 왜 정규직이 아닌 시간선택

제로 되는 거죠?

○은평병원장 남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7급 한 명 인원을 받아서 지금 선발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람도 부족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리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환자가 정신보건법 시행 전과 후가 얼마나 많이 증가한 거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은평병원장 남민 전체 환자는 일단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건이 까다로워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반면에 챙겨야 될 서류들은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작업이 많아져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권미경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외래환자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외래환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리고 급성기 환자들을 위해서 대기공간, 진료공간 이런 것들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은평병원장 남민 일단 내년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4억 정도에서 7억 정도로 늘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예산과와 보건의료정책과하고 같이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권미경 위원 정신보건법인가요, 정신보건법 변경에 따른 행정업무 인력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을 전 과장님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권미경 위원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도 박범 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인력증원이 매우 필요하고 인력증원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임이 지키셔야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제가 저번에 미션이라든가 가치 그런 것을 새로 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주신 이게 다 고쳐진 건가요? 새로 만든 건가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김병관입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만들고 있나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지금 12월 말까지 용역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개별 직원들한테 설문 또는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비전하고 미션 다 바꿀 거죠?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새해에는 새로운…….

○김혜련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그 내용은 안 나왔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아직 지금 의견수렴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보라매병원의 정체성을 가장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겠고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시민들한테도…….

○김혜련 위원 그리고 특별히 보라매병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위원회 만드십시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지금 시민위원회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시민위원회가 하는 일을 제가 지역에서 못 들어봤어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활성화 안 된 거죠. 지역 사람들에게 시민위원회 하는 일이 미미한 거죠. 지금 보라매병원이 질이 높은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

러 가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했지만 보라매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이 가진 의료의 질은 다른 병원도 부러워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홍보 또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홍보까지도 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더 많이 기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핵 문제 구청이랑 도움 주는 일을 같이 만드십시오.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정책과장님, 제가 오늘 사회복지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죽 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의료사회복지가 시립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301네트워크 사업만으로 그게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전문인력들이 병원 내에서,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공무원으로 채워졌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혜련 위원 전문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거고 집행부 내에서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업무를 전문관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제가 동부병원의 사례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례를 꼭 보십시오. 사례관리가 그렇게 잘됐다는 것은 의료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식을 하셔서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료사회사업실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회사업 모델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팀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 안 돼서 과장님을 지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업무파악 못 하셨죠, 팀장님? 더 열심히 우리 병원들하고 소통하셔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적인 의료복지를 국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기존 301 사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실과 그다음에 기타 또 좋은 사례들을 같이 통합해서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미경 위원 북부병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북부병원장 조숙 네,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권미경 위원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완화의료 도우미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예산집행실적, 2017년 예산 집행액, 집행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북부병원장 조숙 저희가 지금 9월 2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완화의료 도우미 서비스를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모두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있어서요 아직 집행률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현재 인건비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9월 25일 시작해서 9월 30일에 데이터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집행이 없는 게 맞고 집행률이 제로인 게 맞는 거죠?

○북부병원장 조숙 네, 이 당시에 9월 30일 기준으로는 그렇고 현재로서는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업무보고 책자가 이게 바르게 된 겁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네, 저희가 10월부터 지출이 됐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전혀 집행되지 않아서 0%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권미경 위원 집행률이 0%면 집행액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네. 감사를 하는 건데 이 자료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북부병원장 조숙 네, 죄송합니다.

○권미경 위원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북부병원장 조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미경 위원 서북병원장님?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지금 서북병원 관련해서는 결핵 병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병원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니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TST랑 IGRA를 했어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결핵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44명과 42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신 거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IGRA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결핵을 앓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양성인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관찰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음성 나온 분들이 근무 중에 양성으로 전환되면 그거는 바로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가장 최신 증거이기 때문에 IGRA 검사에서 핵심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양성이 나와도 약을 먹을 의무는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추후 조치를 어떻게 하신 거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결핵을 치료받지 않았었다고 하면, 처음 검사했는데 양성이라고 할 때 결핵을 진료한 의사들 간에 치료를 하자, 안 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서북병원 직원들은 약을 먹고 있나요? 어떻게 하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에 결핵과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양성입니다.

○권미경 위원 그럼 약을 드시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그런데 아무도 약을 지금 안 먹고 계시고 그래서 다른 양성인 직원들도 아무도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아무도 약을 먹고 있지 않나요? 그럼 약을 먹고 나서의 어떤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질병관리본부사업에 의해서 IGRA 검사에서 양성 나온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 병원이 지정 병원이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그 학생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권미경 위원 약을 처방하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설명해서 약을 먹는 학생도 있고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로 먹게 할 수는 없고요.

○권미경 위원 이 부분이, 서북병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다른 병원의 사례입니다, 다른 병원의 사례인데 양성이 나와서 의사들이 진료를 가서 약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라 그러고 선택해서 약을 먹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간수치가 올라가고 몸 상태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서 스스로가 포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모든 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아마 다들 검사를 했을 거고 양성에 대한 반응이 나왔을 건데 그거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서북병원장님이 대표로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이거 관련돼서는 어떤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의견은?

○서북병원장 박찬병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학계에서도 일부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봄부터 저희들이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때문은 아니겠지만, 국가정책이 40세 되는 분들 전체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금년 중에 취소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때문에 현장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도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또 본 위원이 질의나 아니면 개선 방향까지 서울시가

고민해야, 서북병원이 결핵병원이잖아요. 관련해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어떻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연구하기에는 좀 아직,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벅차고…….

○권미경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지금 결핵 의사도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지금 추가로 선발계획이 있나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고요.

○권미경 위원 채용공고를 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오는 건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뭐라고 보세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아무래도 지금 직영병원들은 대개 같은 조건인데 의사의 급여가 적고…….

○권미경 위원 총 연봉이 얼마죠?

○서북병원장 박찬병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총액 연봉으로 1억 4,000입니다.

○권미경 위원 1억 4,000이 적다고…….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서북병원장 박찬병 일반 병원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권미경 위원 많이 적은 편인가요, 1억 4,000이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권미경 위원 하여튼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서 못 온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을 방법이 연봉을 올리는 법밖에 없는 건가요, 추후?

○서북병원장 박찬병 개인적으로 의사들끼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 먼저 우리 서울의료원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그런데 2017년도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안 내나요? 지금 3.4%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 9월 현재.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올해는 안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작년에는 2.7% 기준으로 했고, 그럼 이게 49명이 지금 취업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취업형태는 별도로 이 부분 자료를 주세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자료드린 내용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더 상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여기 외부강의 같은 경우도 보면 구분을 좀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외부노출은 안 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에 자료로 보는 거니까요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의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했는지 그게 좀 빠져 있거든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보충해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것도 같이 보충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강의 나가는 부분, 이 부분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이번 행감 끝나면 저랑 같이 협의 좀 하겠습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박마루 위원 저 체크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서울시에 지도감독했던 결과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은 강조했던 부분인데 여기 원장님들 공공의료, 지금 전국단위보다 서울시가 앞서고 있어요, 뒤지고 있어요? 의료취약계층 진료율.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다 모르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서도 많이 병원장으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서울시가 그래도 타 지방보다는 공공보건의료 쪽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요, 우리 서울시가. 그렇지만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한 해 1,000억이

넘는 공공의료예산 지원 이런 것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공히 다들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적사항에서도 취약계층 진료 높이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세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 시간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고 싶지만 2016년도 지도점검했던 부분들 조치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2016년도의 지적사항들이, 지도점검이 됐던 것들은 조치가 완료된 건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가 알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들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따로 체크를 안 하셔도 감사위원회에서 계속 또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결과보고 작성 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017년도 5월 16일부터 17일 이 사이에 이렇게. 지도감독 내역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기간이. 이 부분도 뭐 조치가 될 거라고 믿고요. 몇 가지는 미흡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지금 동부병원하고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이 EMR 시스템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이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삭감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입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의 EMR은 저희 현장 나가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하면 집행부 받아주실 거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남아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이 안 된다고 그래도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지켜볼게요.

그러고 정말 지금 방식이, 원장님. 지금 장애인치과병원은 거의 100% 의료취약계층들을 진료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저는 더더욱 공공의료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우리 장애인치과병원이라고 상징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 그리고 저는 구강이 건강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많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대로?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모태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저희 병원과의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본 EMR 필요성하고 저희 병원 자체 현장에서 느끼는 EMR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하고 자병원 모병원 그런 형태로 위ㆍ수탁 관계를 맺은 이후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저희 장애인치과병원에 경영정보시스템이나 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전용서버를 하나 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15년에 관악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새로 개원을 하면서 수탁병원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서버를 전부 세 병원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누적되는 데이터 때문에 저희 병원에 계속 정보처리시스템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내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세 병원이 서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병원에서 이게 뚫리면 환자의 개인정보와 세 병원이 전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치과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2005년에 개원을 하게 됐는데 12년 동안 그동안 종이차트를 써야했던 데이터량이 너무 방대해서 지하에 공간을 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공간도 부족한 상태고요. 또 예기치 못하게 방문하는 환자들이나 응급환자로 오는 환자들의 차트를 찾으러 가려면 담당 어시스트가 지하방에 가서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다음 환자 치료 지연도 걸리고 내원한 그 환자도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굉장히 민원이 폭발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마루 위원 하여튼 원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EMR제도가 들어와서 또 우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제가 역할이 크든 작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금기연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이것 하나만 서울의료원 원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얼굴 좀 피세요.

장애인 건강검진 서울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공공서비스에서 시작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위원님이 해 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마루 위원 지금 어때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작년 수준을 9월에 이미 다 돌파를 해서 점차 늘어가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 애써주시고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서울의료원이 하고 있는 것 한번 보시고요 보라매병원에 도입해 주세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 제일 문제인데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마이크가 꺼졌나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우리가 어차피 본예산에 안 되었다면 실제적으로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고민하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장 김병관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서남병원 관련 동부병원 관련 또 공공의료서비스 관련 답답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야 직무유기 아니고요. 그래서 향후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저는 항상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체크했던 것은 계속 체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숙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10월 27일 개원식도 했고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318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문병원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발달장애아동들 어린이를 위해서 지어진 건데 보니까 신규인원 충원도 16명이나 있어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핵심 치료인력은 치료사인데 9명 늘렸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조직 및 인력현황에서 보면 병원장님 계시는데 발달센터에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센터장은 저희 진료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겸직해서 될까요? 전문적인 인력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사업의 근거도 말씀드렸고 추진실적에서 4대 정책과제도 도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발달장애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센터장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센터장이란 부분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김혜련 위원 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야 된다면 조직과에서 또 공무원 정원을 받아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4급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의 전체 TO랑 관계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개 구에 발달장애인 부모회도 있고 발달장애인 아동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전수조사 하셨나요, 이 수립을 짜면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서울시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어린이수가…….

○**김혜련 위원** 몇 명인지 아시나요? 병원을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타깃팅하는 발달장애인 어린이수가 서울시에 1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전체? 그 부모들하고도 이야기해 보셨나요? 4대 정책과제 도출할 때 만나서 의견 나누시고 만난 적 있나요? 만난 적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있어요? 몇 차례 만났나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발달장애 부모회가 대표적으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함께 가는 부모회라고 작년에 서울시청을 점거했던 부모회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를 저희가 만나서 소통했던 부분이 있고요.

○**김혜련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거기서?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거기서는 주로 하는 얘기가 발달장애 아이들이 커서 직업이라든지 또 복지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저희 어린이병원에서 할 역할은 의료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국자폐인사랑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전문성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든지 협력도 같이 하려고 지금 시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어서 전문인력이 그냥 여기 보니까 충원 인원이 있고 전문으로 담당하는 센터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정책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민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민하실 건가요? 의논하실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고민하시고 의논하실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네, 고민도 하고 의논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십시오.

○**어린이병원장 김재복**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미경 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비도 오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비 그칠 때까지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우산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거의 다 왔고요 내년에는 론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쉽지 않습니다.

○**권미경 위원** 병원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바코드화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맞는 거죠?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고요 사실 5년 정도 준비했다가 2년에 걸쳐서 지금 한 작업이고 내년 2월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경 위원** 7년 정도의 준비를…….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고민한 시간이 겹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과 전산시스템과 물류시스템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전산은 어디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산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미경 위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OCS로만 물려놓으면 굳이 EMR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다른 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쪽을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는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물류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어린이병원, 은평, 서북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위ㆍ수탁병원까지도 이게 다 같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네, 그렇게 하려고 개발했고요. 우선 저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북부, 동부, 서남 정도 같이해서 시도를 해 보고 그게 안정적이게 되면 아마 원하시는 쪽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오픈할 생각이고, 그것을 개발단계부터 서울시에서는 라이선스로 저희 병원이 갖는 것으로 해서 계약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권미경 위원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S병원에서 최근 물류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물건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이런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데모를 하고 있음에도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전체가 다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게 다른 병원에도 EMR이든 전산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최소한 전산시스템은 갖춰져야 됩니다. 동부나 장애인치과병원이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미경 위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은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고 물류까지 선진화해서 바코드시스템까지 들어오는 상황인데 장애인치과나 다른 병원들은 EMR조차도 없고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수기처방을 하고 있는 80년대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불평등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더 답변을 듣도록 하죠.

과장님, EMR, OCS 등등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파악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권미경 위원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까? 의미조차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게 됐으면 이게 얼마나 병원에서 절실한지도 파악이 안 되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그것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필요한 시스템인 것으로 인지하고 계시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치과병원이나 또 어린이병원…….

○권미경 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아세요? EMR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데를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장애인치과하고 어린이병원하고 동부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 위원 거기만 안 되어 있나요?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권미경 위원 안 되어 있는 데를 파악하시고, 전산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공의료의 선두를 달리고 있어야 될 서울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수기로 처방하고 있는 것은 민간 어디에서도 없는 걸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네, 맞습니다.

○권미경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을 배정하셔서 내년에는 적어도 EMR이 모든 병원에 다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권미경 위원이 북부병원 업무보고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장님 나오시겠어요?

○북부병원장 조숙 북부병원장 조숙입니다.

○위원장 박양숙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업무보고에는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수정이 안 된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북부병원장 조숙 오전에 아마 수정을 좀 한 걸로 아는데 권 위원님 것이 아마 그게 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숙 지금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301네트워크 사업실적하고요 365네트워크 사업실적하고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쪽에 301네트워크 기관별 의뢰건수가 2017년 9월 현재 죽 나오죠? 212개 합계고 이렇게 각 기관별로, 11쪽 그리고 14쪽에 여기 365네트워크사업 추진실적인데 기관별 의뢰건수가 2017년 9월 현재 212명이고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같은 실적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북부병원장 조숙 제가 지금 보기에도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다르죠, 내용?

○북부병원장 조숙 네,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아마 오류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숙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자료로 계속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류들은 즉시 즉시 시정을 하시는 게 맞고 예를 들면 수정을 했으면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다 수거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게 계속 자료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위원님들 사무실에 가든해서 이렇게 붙여서라도 시정조치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이 301네트워크하고 365네트워크하고 한번 지금 실적을 보면 기관별 의뢰건수가 301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굉장히 제일 많은데 365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그리 많지 않고 주민센터나 구청이 의뢰건수가 기관별 많은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북부병원장 조숙 일단 365네트워크는 기존 301과 좀 다른 점은 5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좀 많이 오게 되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골고루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숙 그런데 상대적으로 복지관도 365네트워크에 같이 참여하는 기관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301 같은 경우에는 199 의뢰건수로 제일 높고 365 같은 경우에는 39로 확 떨어지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원인분석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북부병원장 조숙 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이 자료가 혹시 잘못된 것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숙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365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의 평가는 안 하고 계십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365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1월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하고 그쪽에서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북부병원장 조숙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365네트워크도?

○북부병원장 조숙 네.

○위원장 박양숙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그 평가가 어떻죠? 의료건수는 떠나더라도 나름대로의 장점 또는 문제점 이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북부병원장 조숙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365네트워크는 이름 자체가 3은 301의 3이고 6은 60세 이상 그리고 5는 5개 기관 컨소시엄 이래서 301하고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펀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컨소시엄을 이루었던 거고 대표기관이 복지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여러 가지 체제가 좀 다르고 또 저희도 복지관에서 비용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복지관은 여러 가지 페이퍼 워크가 너무 많고 저희는 뭐든지 원스톱 서비스로 즉시 환자가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약간 서류작업에 대한 건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 좀 늦는데 복지관에서는 그런 작업이 먼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저희가 네트워킹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 365네트워크에 지역사회 의사들도 들어오고

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끝난 이후에도 네트워킹을 잘 관리한다면 사업을 저희가 지속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네,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북부병원장 조숙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숙 네.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이 301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365도 그렇고 아니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스며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시립병원이 지역사회 일종의 거점 병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북부병원이 긍정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301과 365를 지금 질의했던 이유는 저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라매병원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나름대로 각각이 우리가 종합병원으로서 전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립병원이 어떤 공공 의료, 또는 공공성을 나름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뭔가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계속 우리 의회에서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또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니까 각 병원에서 301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보라매병원을 대표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한다고 지금 한 8개 정도를 이렇게 건강불평등 해소하는 병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적시하셨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병렬적으로 이 부분들을 펼쳐놓은 것이지 이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도 됨직한 정도의 내용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도 있고 혹은 민간 완화의료 도우미라든지 몇 가지 어떤 의료사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단지 몇몇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말 민간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시립병원에서 공공병원에서 뭔가 담보해 낸다고 하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그런 사업들을 뭔가 좀 해내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병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별도로 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시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 301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인력 지원을 해주는 곳과 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을 결단을 해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우리 서울의료원도 같이 선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제는 일정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는, 명실상부하게 그런 공공의료의 역할들에 한 축을 담당하는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새해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러한 계획들이 나와서 서로 함께,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새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하고 몇몇 병원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예산을 그냥 편성안만 2016년과 비교해서 보고하시고 사실 이 편성했던 부분이 올해 1년 동안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가 업무보고 자료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아마 처음 양식을 세팅할 때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불러드렸던 이 병원들은,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예산집행 실적들을 다 보고를 하셨는데 빠졌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편한 환경에서 늦은 시간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소관 사항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양숙 김창원 이복근 권미경
김선갑 김혜련 성백진 오승록
이병해 박마루 유청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의료원

원장	김민기
의무부원장	송관영
행정부원장	오제성
기획조정실장	김석연
진료부장	윤진
교육연구부장	장성희
간호부장	이호연
총무부장	유승원

어린이병원

원장	김재복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간호1과장	김남희
간호2과장	박금옥
약제과장	유희정
원무과장	김성년

은평병원

원장	남민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과장	조경숙
원무과장	이동문
간호과장	김옥희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박영숙
약제부장	정덕숙
원무과장	정태명
간호1과장	임미숙
간호2과장	정남숙

보라매병원

원장	김병관
진료부원장	손환철
사무국장	정영권
간호부장	신효연
약제부장	정선회

동부병원

관리부장	오춘화
총무팀장	이수정

북부병원

원장	조숙
진료부장	정훈

서남병원

원장	박태환
진료부원장	염혜영
기획실장	노창석
간호부장	이인덕
경영지원부장	조규성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금기연
진료부장	남선회
공공의료사업단장	이은영
총무과장	김상철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속기사

김연화 윤정희